



“창조정신 입각 교상과 사상 정립”

제72회 추계강공 회향



▲호강 종령예하

충기 37년 10월 20일부터 24일 까지 서울 통리원에서 개최된 제72회 추계 강공회가 원만 회향됐다.

21일 충지사 서원당에서 열린 개강발사에서 호강 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교상과 사상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중정의 도를 살려야 할 것”이라며 “모든 것은 종조님의 창조정신에 입각해야 할 것”이라고 설했다.

종령 예하는 이와함께 “난행 고행을 해도 반야바라밀을 증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수행자들은 정진수행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원승 통리원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부터는 종단의 모든 승직자들이 깨끗하고 편리한 신축건물에서 동숙할 수 있게 됐다”며 “모쪼록 이번 강공이 일선 사원에서 경험한 교화방편을 상호교환하고, 종단발전 방안을 숙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72회 강공회는 20일 원외회, 재단이사회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개강발사 중앙종의회, 종단현안설명, 승단좌담회, 종조

정신 정통밀교 강좌, 종강발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원외회, 재단이사회 연석회의에서는 예산 및 추가 경정 심의를 비롯해 스승 연장근무 심의, 정심사 노유자 시설 신축 관련 심의, 정각사 등 사원부지 매입, 동해 중 일조관 관련사항 관성사 뉴타운 진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강공 중엔 호강 종령 예하의 종주주, 광명진언 특강과 창조정신(밀교연구소 법경 정사), 정통밀교(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 장례문화(연화회 유재철 대표) 강좌가 열리기도 했다.

임 선출 등을, 종단현안설명회에 선 부의 안건으로 특락전, 만다라 봉안, 정심사 요양시설 설명, 정각사 등 사원부지 매입, 동해 중 일조관 관련사항 관성사 뉴타운 진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강공 중엔 호강 종령 예하의 종주주, 광명진언 특강과 창조정신(밀교연구소 법경 정사), 정통밀교(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 장례문화(연화회 유재철 대표) 강좌가 열리기도 했다.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성료

‘재가불교의 철학과 실천’ 심도 있게 논의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 세미나.

불교충지중이 주관하는 제2차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충지중 교육원 주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화관광부 후원)가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에 걸쳐 서울과 강원도 원주시 등에서 개최됐다.

개막일 16일 서울올림픽 파크텔에서 환영만찬이 있었으며 17일에는 ‘재가불교의 철학과 실천’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려 각국 참가자들이 의견발표를 했다. 18일에는 강원도 원주시와 상원사에서 템플스테이활동과 주제별 토론, 19일엔 서울에서

한국문화소개프로그램 참여, 전통문화공연 관람 등이 마련됐다.

호강 종령예하는 환영사에서 “일찍부터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하며 재가불교 운동에 앞장섰던 우리 충지중은 심오한 불교의 교리를 일반 대중속에서 구현해냄으로써 불국정토를 이루는 데 앞장 서 왔다”며 “우리의 시작은 미미하지만 더욱 노력 하여 대회가 더욱 확대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실천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종령예하는 또 “우리 충지중은 이러한 대회가 승속을 초월하여 현대에 살아 숨 쉬는 불교를 실천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만천하에 펼쳐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대회 조직위원장 화령 정사는 “이 대회는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내걸고 승속을 초월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불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며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산속의 불교를 저자로 가져와 대중들의 정신을 일깨우고 중생들과 더불어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진정한 대승의 이념을 실천하려는 것이 이 대회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16개국 30여명의 재가불교 지도자 및 재가불교운동관련 학자와 승려들이 ‘재가불교의 철학과 실천’과 관련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관련기사 8면, 12면)

11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세계 환경보호’ 논의

원승 통리원장 등 참석, 세계평화기원법회 봉행

제11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불교도의 환경보호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라마다 호텔 등지에서 개최됐다.

대회 첫날 열린 3국 교류위원장 회의에서는 내년 대회 10월 일본 개최, 한·일·중·일 문화교류사업 실무협회의 건 등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엔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과 스님, 불교충지중 원승 통리원장,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 스님, 진각종 총인사서실장 회성 정사,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학성 스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고바야시 류스 스님 등이 참석했다. 회의 후에는 김태환 제주특별

자치도 도지사 주최 환영만찬과 서귀포 약천사에서 열린 전국불교음악제 관람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대회 이튿날 10일 오전에는 제주 관음사에서 세계 평화기원 대법회가 봉행됐다. 평화기원 법회는 높이 12m의 제주대불 제작·점안식을 시작으로 삼귀의례, 한중일 3국 예불의식, 환영사, 대표단 평화기원메시지, 이명박 대통령 축하메시지, 공동발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지관스님은 “생명 존중과 생명에 대한 무한자비가 불교의 근간”이라며 “불교도는 생명이 처한 위기,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올바른 해결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오후 3시부터는 라마다 호텔에서 ‘불교도의 환경보호를 위한 책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강연회가 개최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과 스님은 ‘한국불교환경 여건’이란 기초강연에서 한국 불교계의 환경보호 노력에 대해 조명하고 세계 환경보호를 위한 3국의 연대를 강조했다.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헤자스님은 ‘빙그릇 운동은 21세기형 환경실천 모델’이란 주제강연에서 한국불교의 전통적 수행과 식문화인 발우공양을 소개하고, 빙그릇 운동의 세계화 관련 제



▲ 제주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불교도의 환경보호를 위한 책임과 역할’ 국제학술강연회.

언을 했다.

이와함께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학성 스님이 ‘불교의 가치관이 세계 문화체계 속에 올려 퍼지게 하자’는 주제로, 일본 정토종 광명사 미야바야시소겐 법주가 ‘불교도의 환경 보호를 위한 책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

각 강연했다.

이날 오후 7시 지관 스님 주최 환영만찬을 끝으로 본대회가 폐막됐으며, 다음날 중국, 일본 참가자들은 제주일대 사찰순례 행사를 갖기도 했다.

(관련기사 10면)
제주= 윤우채 기자

종조법설

고(苦)와 낙(樂)

◎ 나무는 비와 바람으로 성장하느니, 비와 바람이 비록 싫다 하겠으나 그로써 자라는 것이며, 사람은 고난하여 성공하느니 고난이 없이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 고난을 겪는 중에 인격이 완성되느니라.

◎ 고락을 겪는 중에 인격을 가(可)히 알 수 있다. 고를 당해서 잘 인내해야 한다.

◎ 업신여김을 받고 잘 하심(下心)해야 한다.

- 종조법설 집언편

10면 특집 /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12면 화보 / 제2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어르신들 부모님처럼

바라밀 재가장기요양기관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어르신에게는 평안한 노후를!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바라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도록 돕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 치매, 중풍, 뇌졸중, 거동불편 환자



주소 : 강남구 역삼2동 776-2
문의 : 02)3452-7485 (016-651-8053)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충지중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가 개원했습니다.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 개원은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노인은 소액의 본인부담금(총비용의 15~20%)으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보장제도입니다.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가정방문 요양서비스)는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도록 돕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 치매, 중풍, 뇌졸중, 거동불편 환자

● 문의 : 02)3452-7485(016-651-8053)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사 설

자기참회 허물불공, 업장소멸 서원성취...

종생이 육도(六度) 윤회를 거듭하는 것은 악업(惡業)을 끝 없이 지어왔기 때문이다. 전생에서부터 지어온 악업은 지금도 여전히 끝지를 못하고 있다. 악업은 몸과 입과 뜻으로 항상 짓고 있는 우리 중생들의 행동양식들이다. 크게 열 가지로 나누어 십악업(十惡業)으로 설명한다. 이 악업의 근원은 바로 탐진치(貪瞋癡) 삼독심(三毒心)에 있다. 이 삼독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악업을 짓게 된다. 착하고 성내는 마음이 가득하니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일 수 밖에 없다. 이 생을 사는 동안 선업 보다 악업을 짓는 경우가 더 많다. 선업은 잠시일 뿐이고 악업은 길고 짙다. 불선업(不善業)의 악업(惡業)이 우리로 하여금 육도 윤회하게 한다. 육도 윤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고 있다. 중생들의 업장(業障) 때문이다.

이 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가? 부처님께서는 '선업을 쌓고 지금까지 지어온 악업들을 지심으로 참회하라'고 교설하셨다. 그리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맹서와 함께 용맹정진을 강조하셨다.

업장을 소멸하고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악업을 짓지 아니하고 무리로 지은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는 것'이다. 진언밀교 총지종단에서는 업장소멸을 '자기 참회'와 '진언염송'에서 찾고 있다. 자기 참회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다. 곧 내 허물을 찾아 뉘우치고 바르게 고쳐나가는 것이다. 이를 '허물불공'이라 한다.

내 잘못을 참회하고 단점과 허물을 고치는 데서 나의 업장이 소멸된다. 업장이 소멸되어야 내가 서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크게는 바른 지혜가 일어나게 된다. 수행에 있어서 참회는 아주 중요하다. 참회 없는 염송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참회가 없으면 내 허물을 찾을 수가 없고 과거 속세로부터 지은 업장을 없앨 수가 없다. 나의 허물을 참회하고 바르게 고쳐 나갈 때 나의 수행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오게 된다.

종단에서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불공이 아니지만 대개 '내 허물 고치기 불공'을 49일간 올리고 있다. 종단의 창교절인 12월 24일을 회향일로 정하고 그 49일전인 11월 6일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 49일 동안에는 '수능임시불공'도 들어 있다. 소원성취를 위해서는 지극한 자기 참회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려는 나의 그림자다. 그리고로 자녀를 위해 불공할때는 나의 업장을 찾아 참회하는 불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자녀가 바르지 못한 것은 내 업장 때문이요, 자녀의 소원성취는 나의 깊은 참회와 업장소멸에 있는 것이다.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거든 참회와 진언염송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허물불공은 자기 참회불공이요, 업장소멸불공이며 '참나'를 찾는 불공이다. 나를 살피는 불공인 것이다.

'내 허물고치는 불공'에 들어갔을 때는 나의 내면을 관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정진노력을 통해서 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나를 제대로 보았을 때 나의 단점과 허물을 찾을 수 있다. 참회 없는 불공은 소원성취를 기대할 수 없다. 자기 허물을 찾지 않고는 바른 수행에 들어갈 수 없고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 악업은 바로 탐진치에 있기 때문이다. 삼독심을 가지고서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없고 깨끗하게 볼 수가 없다. 자기 참회와 허물을 찾으므로써 우주삼라만상은 여여(如如)해진다.

기 원 재

敎主를 통해 본 宗祖 苑淨 大宗師의 가르침 ⑤ / 밀교연구소 · 종학연구실 공동

“본존(本尊)과 의식(儀式) 결정, 종단 틀 확립”

지난호에서는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경전의 번역으로 밀교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밀교경전의 편찬과 역경(譯經)은 당시 한국불교의 일대사였다. 창종전에 이루어진 불사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번호에서 살펴볼 '본존과 의식의 결정'은 종단의 교상과 사상을 확립한 중제(宗制)이자 밀교 종단의 틀을 더욱 확고히 만들었던 불사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종조님께서는 1972년 1월1일, 영등포구 상도동에 집거하시며 밀교종의 창종을 위하여 100일 정진에 드셨다. 정진 중인 4월7일 밤에는 백수노인(白首老人)으로부터 금관(金冠)을 받았으며, 4월 8일에는 꿈에 서광(瑞光)이 일자 한 노인으로부터 '대승장엄보왕경(大乘莊嚴寶王經)과 준제관음법(準提觀音法)으로 교화하라'는 몽수현전(夢授現前)의 시현(示現)으로 활연(豁然)히 대오각성(大悟覺醒)하여 일체교화의 뜻을 굳히기에 이르렀다. 4월 10일 100일 정진을 마치고 대성사는 총지종(總指宗)의 요람처(搖籃處)인 동대문구 상봉동으로 8월 21일 이거(移居)하였다. 이거와 동시에 밀교의 의례를 제정하고 역경불사(譯經佛事)를 마치자, 대성사를 떠났던 많은 대중들이 입교개종(立敎開宗)을 최촉하기에 이르렀다. 종단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중제(宗制)를 마련한 후 드디어 1972년 12월24일 상봉동에서 서울선교부를 개설하고 개종불사(開宗佛事) 겸 창종식을 거행하였다. 현대 한국밀교의 서막을 단전하에 섰던 것이다. 창종은 총지종사(總指宗主)에 가장 중요한 사건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창종전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종전의 불사가 어떤 면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철저한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창종이 가능했다. 창종에서는 창종을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하셨다. 창종전에 행하였던 주요 사실(史實)로는 비밀의계의 제정, 왕생막과 법등의 마련, 육합상(六合相)의 조성, 준제관음상의 현도단과 조성, 왕생다라니 제자, '불교종전'과 '밀교장경'의 역경, 본존 및 의식(儀式)의 결정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그 가운데 본존(本尊)과 의식(儀式)의 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존은 바로 종단의 신인격(神人格)이자 제의당(祭壇) 전물(前物)의 대우전에 해당)에 모셔지는 주존(主尊)이기 때문이다. 종단의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의 핵심이자 요체가 본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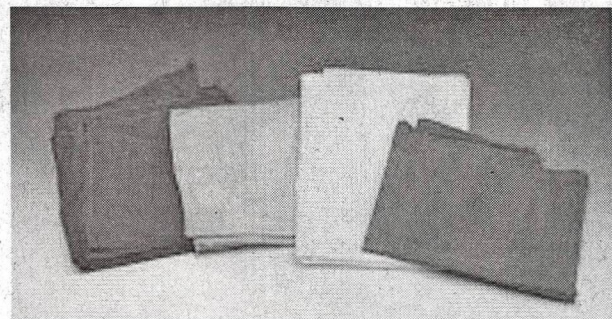
총기 원년(서기1972년) 11월 11일 서울 충정로 선교부에서 스승과 교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성사께서는 총지종의 신앙대상인 본존과 불사의식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발표하셨다.

「첫째, 본존은 육자대명을 봉안한다. 둘째, 불전(佛前) 공양물은 헌화(獻花)와 소향(燒香)에 한하고, 정수(淨水)와 촛불은 쓰지 않기로 결정한다. 셋째, 법의(法衣)의 의제(衣制)는 신라시대의 상의양식과 같이 깃을 밑에 까지 내려서 만들고 소매는 작은 흉탁소매로 하며 색조는 백·황·홍·황의 4색으로 사중수법에 맞추어 착용한다. 넷째, 가사는 금가사(縵袈裟)로 한다. 흑자색지(黑紫色地)에 육합상을 세 곳에 백색(白色)으로 자수(刺繡)를 한다. 목에 걸면 뒤 항부(項部)에 육합상이 보이고 전면은 양홍부(兩脚部)에 육합

상이 보이며 규격에 있어서 폭은 두겹으로 만들어서 반을 접는 것이 6Cm5푼, 길이가 140Cm 되도록 하는 것이다. 금가사와 법의에는 정면에 한 개씩의 4지결(智結)의 흑색노끈으로 단추를 달아서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후 법의는 다시 개정을 하게 된다. 총기7년(1978) 4월19일 제11회 중앙총회 및 제9회 유지재단이 사회 합동회의에서 착용법이 개정되었다.

「첫째, 공식행사와 서원당에서는 검은 법의를 입고 기타 백·황·홍색은 사택에서 수법(修法)을 행할 때만 입는다. 둘째, 전수의 정복은 공식시간·공식행사·가정방문·기타 공무 집행시만 착용하고 그 외는 사복을 착용해도 무방하다. 셋째, 성하(盛夏)에는 상의만 흰색 브라우스로 대응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사색 법의의 사용에 조금의 변화가 생겼다. 흑색 법의를 주로 착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사색건(四色巾) : 밀교의 호마법(護摩法)인 식재법(息災法)·증익법(增益法)·경애법(敬愛法)·항복법(降伏法)의 사중법을 행하기 위하여 네 가지 색의 천[巾]을 덮고 각각의 결인을 하였다.

종조님께서는 법의의 양식과 의계의 제정에 있어서 큰 원칙을 두고 있었으니 밀교의 사중법(四種法)이었다. 식재, 증익, 경애, 항복의 사중법에 따라 법의를 사색(四色)으로 맞추었고, 결인을 행할시 손을 감싸는 형질도 사중법의 사색(四色)에 근거를 두었다. 이것이 사색건(四色巾)이다. 염주 사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중법의 사색(四色)에 바탕을 두었다. 사중법(四種法)에 맞추어 백·황·적·흑색의 염주를 사용하셨다. 그러나 종조께서는 의계를 제정하지 6년만에 법의(法衣)의 의제(衣制)를 바꾸어셨다. 변잡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 생활불교를 지향했던 총지종단의 입장에서 사색의 법의와 사색건의 사용은 일상적인 의식에 있어서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많았음을 시인한 것이었다. 또 잡밀(雜密)과 같은 형태로 무속 신앙을 연상시킨다는 점도 법의 개정에 크게 작용되었던 것 같다. 마치 미신을 신봉하는 종교로 비취지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사중법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사중법이 밀교 호마법의 근간이자 경전상의 근거가 분명한 이상 종단의 사상(事相)에서 배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사중법을 버린다면 밀교를 버리는 것이요, 총지종의 소의경계인 『현밀원통성불심요집』마저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사색 법의(法衣)의 사용이 다소 축소는 되었지만 사중법의 사색(四色)의 의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것이 투명단중법(投名壇中法)이었다. 투명단중법이란 불공지가 종이에 이름과 서원사항

을 적어서 보시금과 함께 불전합회사함에 넣는 것을 말한다. 증익법(增益法)일때는 황색종이에, 식재법(息災法)일때는 백색 종이에, 경애법(敬愛法)일때는 적색(또는 자색) 종이에 서원사항을 적어 회하고 넣고 진언염송을 한다. 서원사항을 적은 종이를 일러서 '강도지(講度紙)' '강도표(講度表)'라고 한다. '부처님의 법과 함께 보시금을 통해 중생을 제도하고 서원을 성취한다'는 의미다. 굳이 사색법의(四色法衣), 사색건(四色巾)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밀교의 사중법이 불공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었다. 항복법은 종단에서 사용을 유보하였으므로 투명단중법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단지 항복법은 법의에 남게 되었다. 항복법은 청색이나 흑색을 사용하는데, 사색 법의 가운데 유일하게 법의에는 적용되었다. 흑색 법의는 바로 항복법의 흑색에 따른 것이다. 사색 법의에서 흑색으로 통일된 것은 1982년의 일이었다. 당시 종령이었던 록정 대종사께서 총기11년(1982) 4월13일 가사개작불사(袈裟改着佛事)를 올리면서 법의(法衣)의 의제(衣制)를 개정하였다. 종령 및 대종사는 황색 금가사에 법의(法衣)는 자색(紫色)으로 하고, 모든 스승은 흑색 법의에 자색(紫色)가사를 개작(改着)하기로 했다. 사색 법의 가운데 자색과 흑색법의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되었다. 자색은 종령의 법의이고, 흑색은 모든 스승의 법의가 되었다. 다시 총기30년(2001년)에 와서 법의와 금가사는 현재와 같은 의제(衣制)로 바뀌었다. 종령의 법의와 금가사는 황색법의에 적색 금가사를, 일반 스승의 경우는 자색 법의에 황색 금가사를 착용하기로 하였다.

육자본존은 총기 원년(1972년) 11월 17일 조성되었다. 서울선교부에서 본존(本尊)조성을 위한 불사를 올렸다. 이 불사에서 공포하기를,「본존은 흑자색(黑紫色) 비단 바탕에 금색실로 육자진언을 법자(梵字)로 수놓은 것을 표구로 가공하여 금색 액자에 넣어서 만든다.」고 하였다.



▲사색법의(四色法衣) : 사중법에 따라 스승의 법의를 사색으로 마련하였다.

본존과 의식의 결정으로 밀교종단의 틀은 더욱 다져지게 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비밀불교의 도량들도 함께 마련되었으니 밀교종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다. 밀교종의 태동은 창종일인 12월 24일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다.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 수석연구원〉
(다음호에서 '종단의 상징을 육합상으로 나타낸다'를 연재합니다.)

- 알림방 ▶ 9일까지 월초불공이 봉행됩니다.
▶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3일 전국 각 사원에서서는 수능 정진불공이 올려 집니다.
▶ 부산 정각사 바라밀 지역아동센터는 무료강의실을 빌려드립니다 (단, 아동들이 없을시 제공합니다). 051)552-0705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 까지

개천사 권영남 10. 2 10,000	단음사 법연지 10. 20 5,000	백월사 박삼순 10. 1 10,000	실보사 조순애 10. 20 10,000	총지사 최순전 10. 27 147,000
개천사 이복남 10. 9 5,000	단음사 박호열 10. 24 10,000	백월사 류승태 10. 9 10,000	실보사 송희준 10. 22 10,000	총지사 이인성 10. 28 30,000
개천사 무명씨 10. 9 5,000	단음사 박주열 10. 24 10,000	백월사 박인국 10. 15 5,000	실지사 정정자 10. 24 5,000	총지사 선도원 10. 29 10,000
개천사 이희권 10. 29 10,000	단형사 공철봉 10. 31 5,000	백월사 박인철 10. 15 5,000	운천사 이승만 10. 15 10,000	통리원 지 정 10. 21 20,000
개천사 경 원 10. 31 10,000	덕화사 하순옥 10. 15 10,000	백월사 이갑진 10. 27 10,000	운천사 박보경 10. 27 20,000	해정사 최영례 10. 14 10,000
개천사 정법수 10. 31 10,000	만보사 민순분 10. 15 10,000	법천사 시 정 10. 21 10,000	정각사 변순계 10. 9 5,000	해정사 서 령 10. 31 10,000
관성사 정인순 10. 27 10,000	만보사 이종구 10. 15 5,000	법천사 원만원 10. 21 10,000	정각사 강정익 10. 13 20,000	해정사 혜원정 10. 31 10,000
관성사 박현숙 10. 27 10,000	만보사 정덕순 10. 21 5,000	법천사 박말조 10. 21 5,000	정각사 김문수 10. 16 10,000	해정사 오혜민 10. 31 10,000
관성사 황성녀 10. 28 10,000	만보사 박선희 10. 23 10,000	법황사 도선행 10. 2 30,000	정각사 구정희 10. 16 20,000	화음사 강승훈 10. 29 10,000
관성사 해 정 10. 31 10,000	만보사 이현진 10. 31 20,000	벽룡사 이희숙 10. 7 10,000	정각사 박수빈 10. 22 10,000	화음사 권정희 10. 30 10,000
관성사 정법계 10. 31 10,000	만보사 이경순 10. 31 10,000	벽룡사 묘심혜 10. 7 20,000	정각사 황기호 10. 23 5,000	흥국사 밀공정 10. 9 10,000
관음사 신막심 10. 14 10,000	만보사 지 성 10. 31 10,000	벽룡사 원 당 10. 7 20,000	정각사 박말연 10. 23 5,000	흥국사 여순애 10. 9 10,000
기로원 상지화 10. 21 10,000	만보사 승효제 10. 31 10,000	선립사 황귀석 10. 10 10,000	정각사 윤선자 10. 29 10,000	임동수 10. 21 20,000
기로원 불명심 10. 21 10,000	밀인사 신대식 10. 16 5,000	선립사 심지장 10. 10 10,000	정각사 자비희 10. 29 30,000	송승자 10. 23 10,000
기로원 법장화 10. 21 10,000	밀인사 이혜성 10. 16 5,000	수인사 장영택 10. 14 50,000	정각사 조현필 10. 29 5,000	이숙남 10. 27 30,000
기로원 대자행 10. 21 10,000	밀인사 신동희 10. 16 5,000	수인사 김봉기 10. 29 10,000	정심사 오윤보 10. 1 5,000	오일록 10. 27 10,000
기로원 대 관 10. 21 10,000	밀인사 신동의 10. 16 5,000	수인사 공경원 10. 29 10,000	정심사 박옥란 10. 28 20,000	
기로원 총지화 10. 21 10,000	밀인사 이연수 10. 23 10,000	수인사 한애숙 10. 30 30,000	지인사 허성동 10. 16 20,000	
기로원 수증원 10. 21 10,000	밀인사 이재호 10. 27 10,000	수인사 환수원 10. 31 10,000	지인사 연동원 10.22 10,000	
기로원 사홍화 10. 21 10,000	밀인사 정정희 10. 29 5,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 통신향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풍경소리

의지하지 말라



부처님의 죽음이 가까워지자
24년간이나 시봉했던 아난이 제일 슬피 울었
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저희는 누구를 의지하
고 살라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였
습니다.
"너는 나를 의지했더니? 세상에 의지할 것이
란 아무 것도 없다.
무엇이고 의지하는 자는 의지처가 사라지면
자신도 무너지느니라.
앞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자기 자
신을 등불로 삼아
그 불빛으로 자신의 길을 비추며 가도록 하
여라."

- 김원각/시인

따뜻한 가슴이 필요합니다

경주의 최부자집이 삼백년을 넘게 만석꾼으
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노스님에게서 받은 한마디의 말씀을 평
생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분노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



취가 나서 견딜 수 없고
골고루 사방에 흩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
다."
부자가 오랫동안 부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졌기 때문입
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
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닐
까요.

- 임술내(시인)

게으름에 대한 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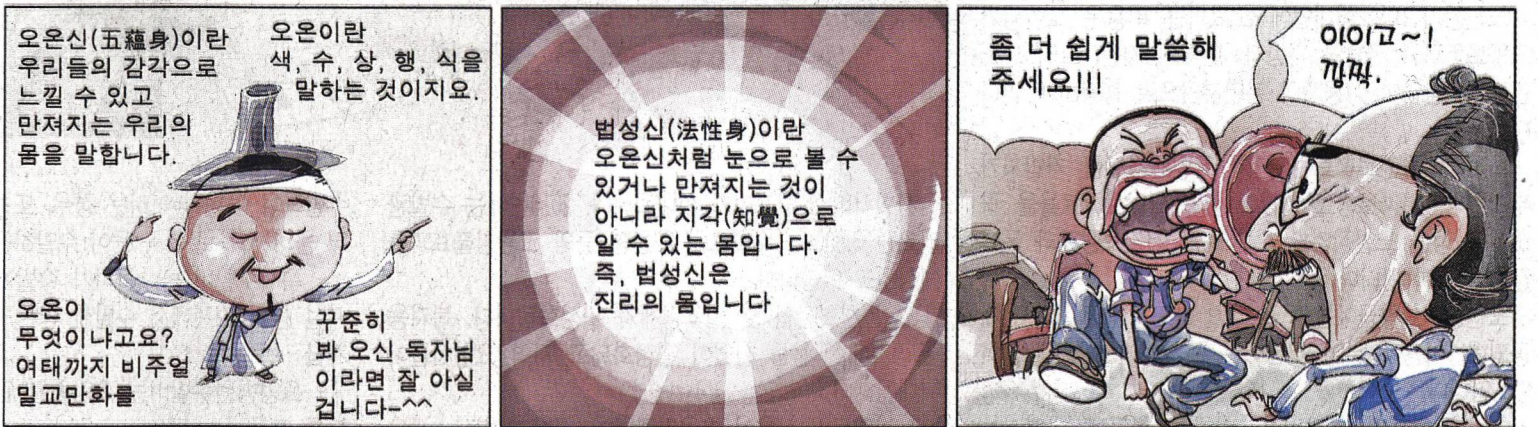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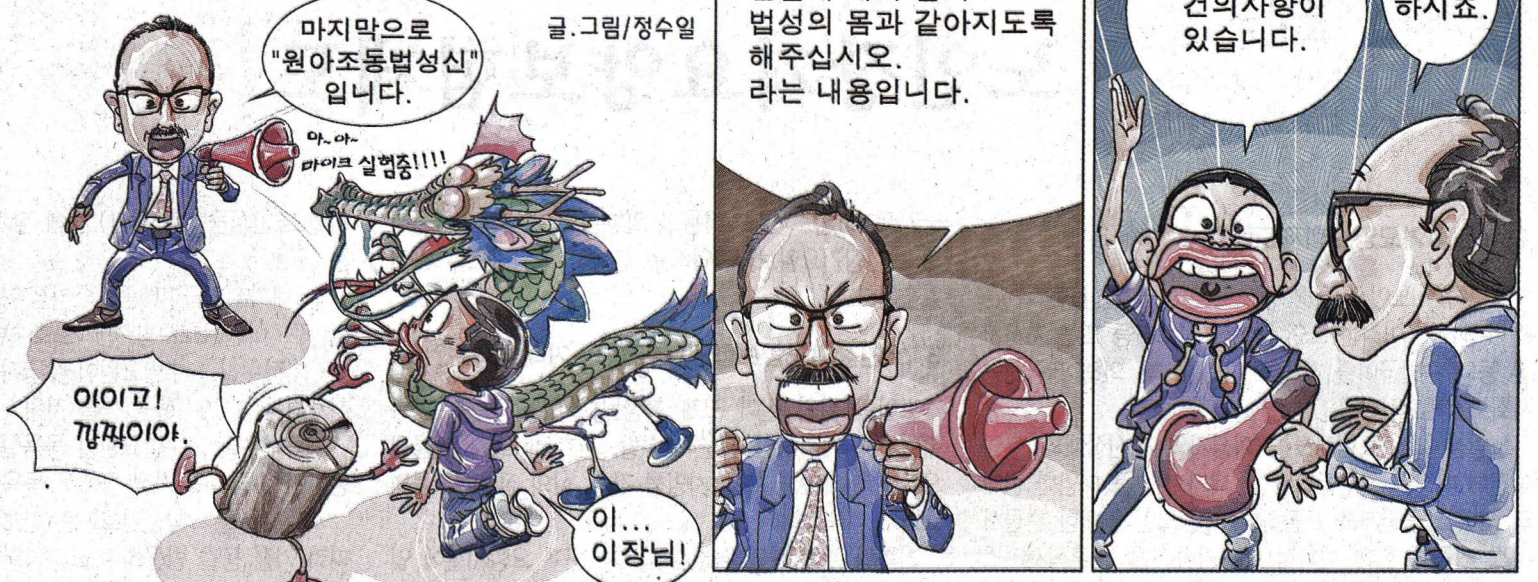


게으른 사람은
춤고 일하지 않으며
덜다고 일하지 않으며
배가 고파도 일하지 않으며
새벽이라고 일하지 않으며
저녁이라고 일하지 않는다.
이런 탓으로 그는 사업을 해도 성공하지 못
하고
사치와 낭비로 재산을 탕진하고 만다.
- 선생지경(善生子經)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밀교

~전수경전 제33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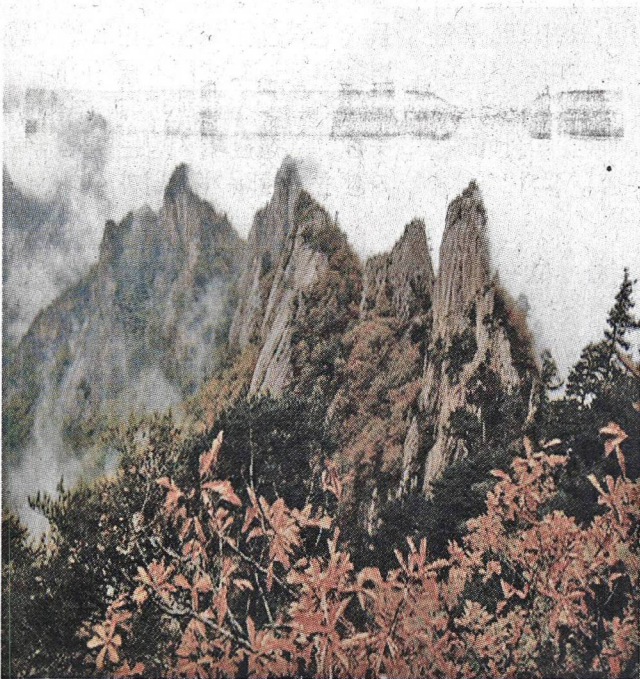
글.그림/정수일



정수일 홈페이지->http://www.drawing라울라.kr

이달의 명상

일체를 놓아 버리라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미래
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현존하
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일 따름이다.
'바로 지금'을 떠나서는 과거
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다. 오늘은 오늘
로서 족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로 지금'을 떠나서
마음의 평화나 육체적 안식을
구해서는 안 된다. 어느 때를
기다려 성취할 것인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회
한이나 후회 등... 일체를 놓아
버려야 한다.



고창 최고의 복분자를 저렴하게 드립니다!

'온 가족이 직접 재배부터 제조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 효능 · 효과 -

- *치매 중풍 예방 및 치료
- *항산화 효과-산화질소 생성 억제로 노화예방 (비타민C보다 5.2배 이상 효과)
- *관절염 치료 예방과 오존소태, 방광계통 치료
- *위장 질병 치료예방(위궤양, 십이지장)
- *장내 유해세균 억제
- *항암효과(미숙과에서 특효를 보임)
- *탈모방지, 발모촉진
-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및 정력강화
- 서울대,경희대,전북대,원광대 연구발표 -

* 가격: 복분자 엑기스 \W40.000 복분자주 \W25.000 * 2병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 주문전화: 063-564-4230 018-603-4230



만다리의 복지세상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 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수발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급여형태가 다양합니다.

참고로 이미 오래전부터 고통과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 재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 :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 사회보험방식 국가 : 독일, 일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 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 중인 국가 : 미국, 캐나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방식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부담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며, 건강보험료액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곱하여 산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하도록 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제공되며, 이용자 본인 부담액은 재가는 15%, 시설급여 20%입니다.

* 월 한도액 초과비용·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100% 본인부담

※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비용의 일부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비용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비전문적 가족 수발에서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 간호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족의 부양 부담이 경감됩니다. 현재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월 70~250만원의 고가를 부담해야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하에서는 30~40만원(식비 포함) 수준으로 부담비용이 줄어듭니다.

재가 수발서비스의 경우 월 12~16만원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성 등 비공식 수발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합니다. 여성 등 비공식 수발자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제도도입에 따라 감소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이 발생합니다.

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입소시켜 제공하는 급여

○ 재가수발급여(5종) -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으로 구성

- 가정수발 : 수발요원이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목욕수발 : 수발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목욕을 시켜주는 급여

- 간호수발 : 방문간호기관 간호사 등이 의사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간호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수발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수발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수발 : 일정기간 동안 수발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

○ 특별현금급여(3) -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로 구성

- 가족수발비는 수급자 중 ① 도사·벽지 등 수발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② 천재지변 등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2010년에는 수발관리요원 3,800명, 수발요원 52명 등 고용창출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 친화산업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복지용구 및 재활 용품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요양시설이 확대됩니다.

! 의료비 사용이 효율화됩니다.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수발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 노인의료비의 사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발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③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수발하는 경우에 지급

- 특례수발비는 수급자가 수발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에서 수발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수발비는 요양병원 입원시 수발비용의 일부를 지급

6.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자와 수급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동일하며,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입니다.

수발대상자는 신청자 중 지역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발인정을 신청받은 때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자를 방문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자료조사 : 지정 정사)

4. 수발급여 제공 절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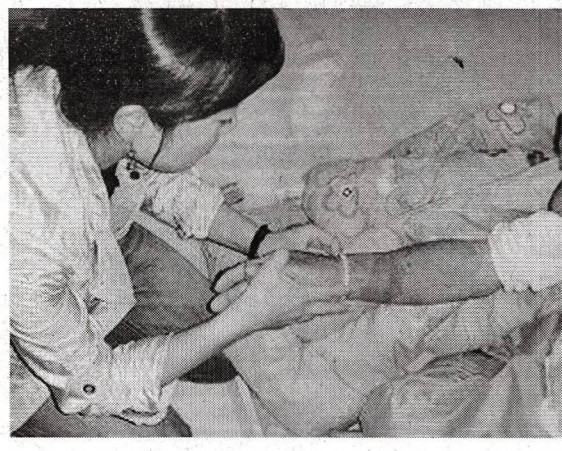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수발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발보호 대상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판정도구 등에 의하여 수발인정과 수발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수발인정 신청 → 수발인정 신청 조사 → 수발인정심사(수발등급판정위원회) → 결과통보(수발인정서 송부)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떤 서비스(급여)를 제공하나요?

노인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시설수발급여, 재가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 시설수발급여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



▲도우미가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다.

총기동의보감

불임의 한방치료



조선휘 원장

(여성 美 한의원)

국내에 있는 유명한 외국계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30대중반의 K씨는 4년 전 직장동료인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여 경제적, 육체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가까운 친구, 직장 동료들의 임신, 출산, 돌잔치 소식을 접할 때면 환하게 웃는 얼굴과는반대로 마음은 항상 찡찡하고 우울하기만 했다. 그 이유는 일류 대 졸업, 일류 외국계 회사 입사와 빠른 승진 등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외형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정작 결혼생활 4년 동안에 임신, 연이은 두 번의 유산, 두 차례의 시술관 아기 시도는 자존심 강한 그녀에게 크나큰 자괴감을 안겨 주기에 충분했다. 남편은 고통의 원인제공자는 "불임"이었던 것이다.

불임은 남녀가 결혼 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미 아기를 낳았더라도 그 후 2년 이상 임신을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요즘 젊은 부부 7쌍 중에 한 쌍이 불임 부부이고, 과도한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환경 호르몬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불임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한방에서는 수정, 배란, 착상이라는 임신의 과정 혹은 난자, 정자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불임을 유발시키며 그 원인은 자궁의 이상, 배란장애, 난자, 나팔관의 이상, 자궁경부 점액의 이상, 원인이 없는 기능성 장애에 있다고 보는 반면 한방에서는 그 원인을 첫째, 습담이 많은 비만한 체형에 발생하는 경우 둘째, 생식력의 근원인 신장의 기운이약해서 발생한 경우 셋째,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기혈이 동체서 생기는 경우 넷째, 자궁에 양기가 부족하거나 관리소홀로 자궁을 냉하게 방치해서 생긴 경우 다섯째, 선천적 자궁기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여섯째,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예민한 경우 일곱째, 종양이 있는 경우에 불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불임의 한방적 치료는 반드시 근본을 고쳐야 한다는 원칙이라 정상적 생리주기와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여성 생식기의 모체인 자궁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오장육부의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자궁근종, 자궁 내막증 등의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적절한 치료에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불임 발생률의 40%를 차지하는 남성 불임이다. 주요 원인은 정신적 스트레스, 과로, 술, 담배 등으로 인해 신장의 기운이 손상을 받아서 나타나는 정액의 이상, 사정시 장애, 발기장애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성 불임의 치료의 근본은 손상된 신장의 기운을 살려주고 오장육부의 불균형을 조화롭게 만들면서 동시에 올바른 식사습관, 생활습관의 개선 등 건강증진을 위한 전신요법 시행이 병행된다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외에도 마음의 안정과 더불어 따뜻한 부부생활과 사랑은 불임극복의 가장 큰 윤활유가 아닐까 싶다.

죽비소리

울퉁한 자인(慈忍)

분노하면 법을 깨치지 못하며 분노하면 도를 알지 못하니, 분노를 없애면 복과 착함이 항상 그 몸을 따른다.
달리는 수레를 멈추듯 성냄을 스스로 제어해야 하니, 이것이 훌륭한 자인(慈忍)이며, 어두운 곳을 버리고 밝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법구경 法句經)

여성美 調經 調經 調經

여성美 調經 調經 調經

여성美 調經 調經 調經

여성美 調經 調經 調經

자경단(子經丹)

중양질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불임 자궁어혈 제거

생리분석기

자동발진단기

초음파

온열전기침

적주파자극기

좌훈욕기

생리분석기

자동발진단기

초음파

온열전기침

적주파자극기

좌훈욕기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여성美 調經 調經 調經

여성美 調經 調經 調經

여성美 調經 調經 調經

여성美 調經 調經 調經

한남대교

신사역3번출구

신한은행빌딩

신사역1번출구

도산대로

3M

20M

1분거리

STARBUCKS

매점매약점

강남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죽비소리 “전문상담”

지상설법

꿈임없이 기다리는 부처님의 애타는 마음



수현

(진주 화음사 주교)

법화경(法華經)의 신해품(信解品)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어렸을 때 집을 뛰쳐나와 갈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걸인 신세였습니다. 온갖 곳을 돌아다니다 거지 생활을 한 지 어언 몇십 년. 나이가 들자 몸도 약

해지고 옛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더듬어 옛 고향을 찾아 나섭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들이 갑자기 없어지자 온갖 힘을 기울여 팔방으로 찾았지만 결국 실패하고, 하는 수 없이 어느 도시에 자리 잡아 그곳에서 첫째로 손꼽히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형편없이 궁색해진 아들이 여러 도시를 떠돌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사는 도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시도 아들을 잊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정처없이 이 집 저 집 품팔이를 다니다가 대궐 같은 큰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문 앞에 잠시 멈춰 서서 집 안을 살펴보니 보기에 고귀한 분이 상인들에게 둘러싸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고귀한 분이 우연히 문 밖 사내에게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가 자기 자식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즉시 그는 하인에게 저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신을 도둑 취급하는 줄 알고 놀라서 도망을 가 버립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는 하인을 초라한 복장으로 보내어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 가라고 달래

도록 합니다. 샅은 두 배로 준다고 하고서 말이지요.

아버지는 신분을 숨긴 채 아들에게 변소 청소, 하수구 청소부터 차례로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들은 명실공히 곳간의 열쇠, 장부까지도 모두 맡을 수 있는 단계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몇 년 후, 아버지는 임종에 이르러서야 모든 사람들을 불러모아 이 하인이 자기 아들임을 밝히고 자기 재산을 모두 물려주었습니다.

이 경전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바로 부처님이요 아들은 바로 우리 중생들입니다. 불법이란 이처럼 자상하고 배려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상한 가르침을 모르고 지냅니다. 꿈임없이 기다리는 부처님의 애타는 마음을 너무도 모릅니다. 약간의 시련에도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 합니다. 그러나 항상 부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려 합니다.

지금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의 바다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엉뚱한 바다를 그리워하며 해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미 부처

님의 핵심된 가르침은 다 듣고 알고 있으면서 또 뭔가 다른 것이 없나 하고 조바심 내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처님의 백유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마나면 서쪽 바다에 꿈 많은 송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송어에게는 항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고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송어는 장밋빛으로 멋지게 솟아오르는 동쪽의 해님이 너무나 황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서해보다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동해가 하나의 '이상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송어는 큰 결심을 하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서해를 떠나 동쪽을 향해 꿈에 부른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동쪽 수평선 너머에는 틀림없이 아름다운 세계가 있을 거야?' 그러나 석 달 간이나 밤낮으로 헤엄쳤는데 수평선은 도저히 잡히지 않고, 가면 간 만큼 또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기진맥진하여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반대편에서 아주 힘차게 헤엄쳐

오는 고등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고등어야, 너는 온몸에 희광과 동경이 가득 차서 어디로 가고 있니?"

"응, 나는 서쪽 바다를 찾아가고 있단다. 밤마다 너무나 황홀하게 지는 저녁 노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난 서쪽 바다, 붉게 노을이 지는 그 세계에서 살고 싶단다. 이쪽 동해는 넘 재미가 없어. 송어야, 너도 같이 가지 않겠어?"

지금까지 고생하며 달려온 송어를 생각하면 기절초풍할 고등어의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법회에 참석하여 법문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은 지꾸만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 자기 자신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감히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아득히 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의 경지'는 지금 내가 발 디디고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 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지요
잊지마세요 항상 부처님은 우리를 곁을 항상 지키고 있다는 것을! 성도 합시다!

◇ 번뇌의 업과 악행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라자가하의 영축산에 계셨다. 아침이 되어 가사를 입고 바리를 들고, 걸식하러 성안으로 들어가셨다. 성안에 사는 한 장자의 아들 싱갈라가 못에서 목욕하고 언덕에 올라와 몸을 말린 뒤 동·서·남·북·상·하의 여섯 군데를 향해 예배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나는 무엇 때문에 육방의 여섯 군데를 향해 예배하느냐?"

싱갈라는 부처님께 대답했다.

"저의 아버지가 임종하실 때 '너는 무엇에나 예배하고 싶거든 먼저 동·서·남·북·상·하의 여섯 군데를 향해 예배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감히 어길 수 없어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싱갈라에게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방위의 이름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 성현의 법에는 그런 육방의 예배로써 으뜸을 삼지 않는다.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께 여쭙었다.

"그 성현의 법안에서 육방에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너를 위해 설명하겠으니 자세히 듣고 잘 명심하여라. 네 가지 번뇌의 업과 네 가지 악행과 또 여섯 가지 재산을 없애는 일이 있다. 이런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육방에 예배하면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후생에 가서도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다.

네 가지 번뇌의 업이란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과 거짓말이다. 또 네 가지 나쁜 행위란 탐욕과 성냄과 두려워함과 어리석음이다. 이와 같은 번뇌의

업과 악행을 행하면 큰 불행이 있을 것이다.

또 재산을 없애는 여섯 가지 일이란 술에 취하고 도박하며 방탕하고 풍류에 빠지며 나쁜 벗과 어울리고 게으름에 빠지는 일이다. 이런 악행을 떠나 뒤에 육방에 예배하면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 항상 안락할 것이다.

술을 마시는 데에는 다음 같은 허물이 있다. 재산을 소비하게 되고 병이 생기고 잘 다투고 나쁜 이름이 퍼지며 분노가 폭발하고 지혜가 날로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도박에도 다음과 같은 허물이 있다. 재산이 날로 줄어들고 도박에, 이기더라도 원한이 생기며, 지혜로운 사람이 타일러도 듣지 않고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며 도둑질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방탕에도 다음 같은 허물이 있다. 몸을 보호하지 못하며, 자손을 보호하지 못하고 항상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며, 온갖 괴롭고 나쁜 일이 몸을 얹어매고 허망하다는 생각을 잘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탕하지 말아야 한다.

나쁜 벗과 어울리는 데에도 다음과 같은 허물이 있다. 남을 속일 꾀를 내고 으스스한 곳을 좋아하며, 남의 여자를 유혹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며 재물을 독차지하려 하고 남의 허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쁜 벗과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

게으름에도 다음과 같은 허물이 있다. 부자면 부자라고 해서,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해서 일하기 싫어한다. 추울 때는 춥다고 해서, 더울 때는 덥다고 해서 일하기 싫어한다. 시간이 이르면 이르다고 해서, 시간이 늦으면 늦었다고 해서 일하기 싫어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부디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가까이해야 할 벗이 있다. 그는 너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보살펴 준다. 잘못을 말리고 사랑하고 가없이 여기며, 남을 이렇게 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벗이다. 그러므로 그런 이는 친해야 한다."

(육방예경 六方禮經)

◇ 번뇌의 화살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얼마를 살는지 알 수 없다. 사람의 목숨이란 비참하고 짧으며 고뇌로 엉켜 있다. 태어나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으며 늙으면 죽음이 온다. 실로 생이 있는 자의 운명은 이런 것이다. 익은 과

라저 간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늙음과 죽음으로 인해 사라져 간다. 그러나 슬기로운 이는 세상의 참모습(實相)을 알고 슬퍼하지 않는다.

그대는 온 사람의 길을 모르고, 또 간 사람의 길도 모른다. 그대는 생과 사 두 끝을 보지 않고 부질없이 슬퍼우는가. 미망에 붙들려 울고불고 해서 무슨 이익이라도 생긴다면 현자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 더욱더 괴로움이 생기고 몸만 여윌 따름이다.

스스로 자신을 해치면서 몸을 여윌 게 하고 추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울며 슬퍼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근심을 버리지

게 되었구나' 라고 깨달아,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마라. 이를테면, 집에 불이 난 것을 몰로 끄는 것과 같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걱정이 생겼을 때는 이내 지워 버린다. 마치 바람이 숨을 날려 버리듯이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은 슬픔과 욕심과 걱정을 버려라. 자기 번뇌의 화살을 뽑으라. 번뇌의 화살을 뽑아 버리고 거리낌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모든 걱정을 초월하고 근심 없는 자, 평안에 돌아간 자가 될 것이다. (經集)

◇ 음행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사뱃티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수많은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아난다가 웃기를 여미며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자비하신 부처님, 저는 이미 성불하는 법문을 이해하여 수행하는 일에 의심이 없습니다. 언젠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는 제도되지 못했더라도 남을 먼저 제도하려는 것은 보살의 발심이고, 자기가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는 것은 여래가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비록 제도되지 못했으나 미래의 중생을 제도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 말세에는 사투한 무리들이 나타나 그릇된 주장이 강가강의 모래처럼 많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어야 온갖 장애를 물리치고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의 물음을 칭찬하 시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아난다여, 네 물음과 같이 말세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은 그 마음

을 올바르게 가다듬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수행하는 데에 세 가지 정해진 도리가 있다. 마음을 거두는 계율, 계로 말미암아 생기는 선정, 선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지혜, 이것이 번뇌를 없애는 세 가지 공부다.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음란한 마음만 없다면 생사에서 바로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수행하는 것은 번뇌를 없애려는 것인데, 만약 음란한 마음을 끊지 않는다면 절대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설사 근기가 뛰어나 선정이나 지혜가 생겼다 할지라도, 음행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마군의 길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내가 열반에 든 뒤 말세에는, 그러한 마군의 무리들이 성행하여 음행을 탐하면서도 선지식 노릇을 하여, 어리석은 중생들을 애육과 사된 소견의 구렁에 빠뜨릴 것이다.

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삼매를 닦게 하려거든 먼저 음욕부터 끊게 하여라. 이것이 모든 여래의 첫째 결정인 청정한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음욕을 끊지 않고 수도한다는 것은 모래를 찌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 모래를 가지고는 백 천 겁을 찌다 할지라도 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음행하는 몸으로 불교를 얻으려 하면 아무리 미묘하게 깨닫는다 하여도 그것은 모두 음욕의 근본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이 음욕이므로 삼악도에 떨어져 헤어날 수 없는 것인데 열반의 길을 어떻게 닦아 얻는단 말인가. 음란한 뿌리를 몸과 마음에서 말끔히 뽑아버리고 뽑아버렸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비로소 부처되는 길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는 말은 여래의 말이고, 그렇지 않은 말은 마군의 말이다."

(首楞嚴經 六)

진리의 여울

일은 빨리 떨어질 위험이 있듯이 태어난 자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에게는 항상 죽음의 두려움이 따른다. 이를테면, 웅기장이가 만든 질그릇이 마칠내는 모두 깨어지고 말듯이, 사람의 목숨도 또한 그와 같다.

젊은이도 장년도, 어리석은 이도 지혜로운 이도 모두 죽음 앞에는 굴복하고 만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들은 죽음에 붙잡혀 저 세상으로 가지만, 아버지 그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친척도 그 친척을 저 세상에서 구해낼 수 없다. 보라, 친척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지만 사람은 하나씩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사

않는 사람은 점점 더 고뇌를 겪게 된다. 죽은 사람 때문에 온다는 것은 더욱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지는 업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라. 모든 살아 있는 자는 죽음에 붙잡혀 떨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염원할지라도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기대에 어긋나는 것도 이와 같다. 보라, 세상의 저 모습을, 가령 사람이 백 년을 살거나 그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친척들을 떠나 이 세상의 목숨을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죽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는 '그는 이미 내 힘이 미치지 못하

충지중 정각사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바라밀 공부방은 자라나는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학습, 교육하는 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용대상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아동,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차상위 아동

프로그램

학습활동 : 국어, 수학, 영어, 한문
신체활동 : 요가, 태권도
문화활동 : 영화보기, 비디오상영
특별활동 : 컴퓨터, 미술수업
급식제공 : 일일1회석식제공, 간식제공
홈페이지 : happylog.naver.com/baramil.do

※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 수시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컴퓨터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2시간정도 봉사해 주실 뜻을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바라밀 아동들의 문화프로그램 신장을 위한 후원을 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기업은행 094-059285-04-046

예금주 :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진언수행의 길

총지종의 중심교리

비로자나불을 주존(主尊)으로, 비로자나불의 다른 모습인 관세음보살의 본심진언 육자대명왕 진언인 <옴마니반메훔>을 본존(本尊)으로 모시며, 육자진언과 함께 준제진언을 중심수행법으로 삼아 현세정화와 즉신성불을 구경으로 한다.

주존(主尊) 법신 비로자나불

총지종의 중심이 되는 부처님(主尊)은 비로자나불이다. 이 부처님은 범어로 Vairocana(바이로차나)라고 하며 광명변조(光名遍照)라는 뜻이다. 광명변조란 부처님의 지비광명이 널리 우주법계에 가득히 충만되어 있다는 뜻이다.

비로자나부처님의 소의정전은 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으로 일명 대일경(大日經)이라 한다.

대일(大日)이란 바로 광명변조라는 뜻에서 나왔으며, 이 경을 한문으로 번역한 선무의 삼장이 대일경소(大日經疏)에서 처음으로 '대일'이란 말을 사용했다. 그 이후 밀교종에서는 비로자나불을 대일여래(大日如來), 그 경을 '대일경'이라 부르게 되었다.

○ 대일여래란

선무의 삼장은 대일경소에서 말하기를 이 부처님은 태양과 같으므로 비로자나, 즉 대일이라 한다고 하고 그 불덕(佛德)을 제암변명(除暗遍明), 능성중무(能成衆務), 광무생멸(光務生滅)의 세가지 덕성을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암변명(除暗遍明)이란 어둠을 걷고 밝음을 편다는 뜻이다. 이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낮과 밤, 온 천지의 안과 밖이 구분없이 골고루 비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능성중무(能成衆務)의 덕이란 모든 일을 이루게 한다는 덕이다. 마치 태양빛이 삼라만상을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덕성을 말하는 것이다.

광무생멸(光務生滅)의 덕이란 불생불멸(不生不滅)의 덕을 나타낸다. 즉 대일여래는 바로 일체의 본체이며, 본래부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는 것이다(本來不生不滅-本不生). 따라서 모든 불보살은 대일여래의 분화신(分化身)이며, 또한 대일여래는 우주요, 진리요, 일체이다.

즉 우주삼관만상이 모두 대일여래요, 대일여래의 모습이 바로 일체존재라고 할 수 있다.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대일여래요, 인간 축생 모두가 대일여래인 것이다.

이 부처님은 과거불이나 석가모니불의 깨달음에 관계없이 원래부터 무시무중으로 우주법계에 널리 두루 편만하여 상주하여 있는 진여불이다. 그러므로 이 부처님은 세간중생들이 무명에 가리워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까닭에 방편으로 한 부처님을 몸에서 분화 화현시켜 내보냈으니 그 부처님이 곧 석가여래이다. 그래서 석가여래를 응화방편불이라 한다.

비로자나부처님은 우주법계에 상주하여 있는 이치적인 진리의 부처님이다 이를 이불이라 한다. 또 법으로서 존재하는 부처님이므로 법신불이라고도 한다.

만다라세상

이 우주의 모든 유정물과 무정물들이 모두 나와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하나도 하찮은 것이 없다. 더 귀하거나 천한 것은 없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은 없다. 내가 소중한 것 처럼, 사람이 소중한 것 처럼, 똑같이 나무와 풀과 산과 흙과 심지어 자동차와 의자와 집과 컴퓨터 또한 소중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처럼, 존경하는 스승 앞에 섰을 때처럼, 부처님 앞에 섰을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모든 존재 앞에 서라. 유정물이든 무정물이든 모든 존재 앞에 세상에 서 가장 존귀한 마음으로 다가 서라.

일체 모든 존재를 존중하며 감사하고 찬탄하며 존귀하게 여기라. 이 세상의 생령 있고 없는 모든 존재에게 무한한 공경심으로 엎드려 절하라. 매 순간 세상 만물에게 기도하라. 유정물과 무정물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인연법의 진리 안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나와 인연을 짓고 있음을 안다면, 세상에는 더 이상 존귀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바로 그 때 우리의 삶은 경이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이 세상을 향한 지고한 공경심!! 모든 존재를 향한 평등한 자비심!! 이것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의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다.

-목탁소리

(www.moktak소리.org) / 법상스님



불교설화 <28>

소나무 숲에서 솟아난 절

칠곡 송림사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며 바람마저 세차게 부는 추운 겨울 점심 무렵.

아름드리 소나무가 무성한 얇은 산에 화려한 상여 하나가 다다랐다. 관이 내려지자 상주들의 곡성이 더욱 구슬퍼졌다. 땅을 치고 우는 사람, 관을 잡고 우는 사람 등 각양 각색으로 슬픔을 못이겨 하는데 오직 만상주만은 전혀 슬픈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40세쯤 되어 보이는 그는 울기는 커녕 뭇 감시하는 듯 연신 사방을 둘러보며 두 눈을 번뜩였다. 마을 사람들과 일꾼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죄송합니다. 오늘 장례식에서는 딱 한 쪽, 술 한 잔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새끼 한 쌍, 거적 한 장도 가져서는 안됩니다. 그 대신 일꾼 여러분에게는 장례식이 끝난 뒤 마을에 내려가 품삯을 곱으로 드리겠습니다.』

꼭도 하지 않고 두리번거리기만 하던 만상주가 당연히 나뉘 먹어야 할 음식을 줄 수 없다는 까닭 모를 말을 하자 사람들은 술렁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다.

간밤이었다. 돌아가신 부친 옆에서 꼬박 이틀밤을 새운 그는 몹시 고단해 잠이 들었다. 그때 그에게 선조인 듯한 백발의 노인 한 분이 다가와 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만상주는 명심해서 듣거라. 그대 부친의 묘자리는 길흉이 함께 앉았으니 잘하면 복을 누리고 잘못하면 패가망신할 것이니라.』

깜짝 놀란 그는 노인에게 매달렸다. 『어떻게 하면 길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 말을 잘 듣고 명심해서 실천하면 되니라. 좀 어렵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장례를 지낼 때 술 한 잔은 물론 물 한 모금도 남에게 줘서는 안되느니라. 만약 새끼줄 한 토막이라도 적선하게 되면 가세가 기울고 대가 끊길 것이며 이르는 대로 잘 지키면 가세가 번창할 것이다.』

단단히 일러주고 노인은 사라졌다. 만상주는 아무에게도 이 사연을 공개할 수가 없었다. 행여 누가 음식을 먹을까 아니면 새끼 한 토막이라도 집어갈까 열심히 주위를 살피기만 할 뿐이었다. 주린 배를 움켜쥐고 부지런히 삽질을 하는 일꾼들은 아무래도 무슨 곡절이 있나 보라며 수군거렸다. 이때 절인을 한 패가 물려왔다. 그러나 딱 한 쪽 얻지 못한 패거리들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세상에 막걸리 한 잔 안주도 없는 초상집은 생전 처음이구만. 어디 요놈의 집구석 잘 사나 보라. 에이 뭣.』 그러나 만상주는 못들은 척했다. 혹시 절

인들이 행패라도 놓으며 음식을 먹을까 염려된 그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음식을 모두 집으로 가져가게 하고는 머슴에게 다시 단단히 일켰다. 아무도 음식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고. 그 광경을 본 절인들은 상소리를 퍼부으며 돌아갔다. 만상주는 한결 마음이 놓였다. 허나 그는 다시 걱정이 시작됐다. 『집으로 보낸 음식을 누가 남은 음식인 줄 알고 퍼가거나 먹으면 어쩌나.』 그는 더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잔소리 말고 어서 저리 비켜!』 일꾼 한 사람이 만상주 부탁이 생각나 거지아이를 때밀었다. 아이는 맥없이 땅바닥에 나가 뒹굴었다. 소년은 양양 일어섰다.

『불쌍한 아이를 말로 쫓을 것이지 밀기는 왜 미나?』 『글쎄, 가엾군.』

거지 소년은 일꾼들이 달래주자 더 소리 높여 울더니 막 불이 붙으려는 거적 하나만 달라고 애원했다.

『추워 죽겠어요. 그 거적 태우지 말고 나 주세요, 아저씨.』

『안된다.』

『태우는 것보다 내가 덮으면 좋잖아요. 네? 아저씨.』

마치 사시나무 떨 듯 몸을 움츠리며 사정하는 거지아이를 보다 못해 일꾼들은 만상주와 약속을 저버린 채 인정을 베풀고 말았다.

『야야, 이걸 갖고 사람들이 보지 않게 저 소나무 숲으로 빠져나가거라. 누가 보면 우린 큰일난다. 알았지?』

『네, 이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거적을 뒤집어 쓴 거지 소년은 손발같이 소나무 숲으로 달아났다. 일꾼들은 적선을 했다는 기분에서 흐뭇한 얼굴로 연장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광! 하고 천지가 진동하는 폭음이 들려왔다. 바로 거지 소년이 사라진 소나무 숲에서 난 소리였다. 놀란 일꾼들이 소나무 숲으로

설화: 정윤지

달려가 보니 참으로 묘한 정경이 생겼다. 거지아이는 간 곳이 없고 숲속에는 보지 못한 절 한 채가 솟아나 있는 것이 하연하. 일꾼들은 겁을 먹고 마을로 내려왔다.

그 후 묘를 쓴 집안은 날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거지에게 거적을 준 일꾼들은 차차 형편이 피면서 큰 부자가 됐다.

마을 사람들은 소나무 숲에서 솟아난 절을 송림사라 불렀고 가난한 이웃에게 적선을 베풀 때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되새겨 서로 도우면서 화목하게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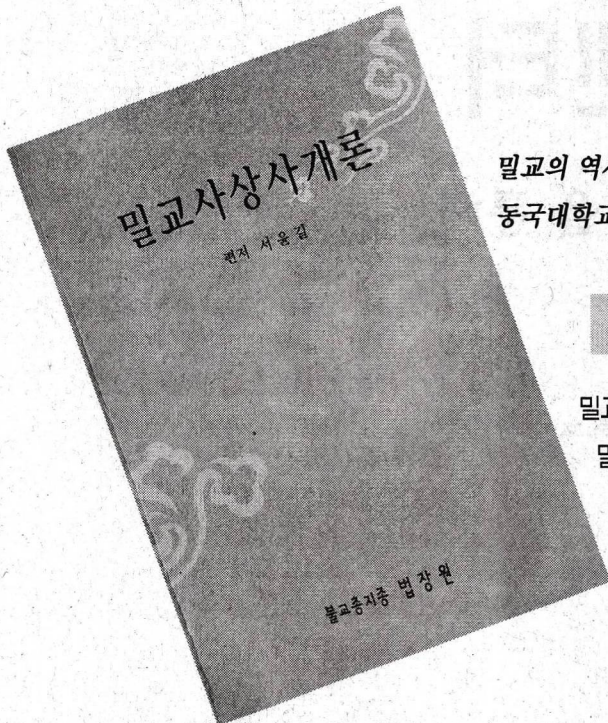
지금도 대구에서 안동으로 가는 국도를 따라 30리쯤 가면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이르러 있는데 면소재지서 동쪽으로 5리쯤 가면 신라 내물왕 때 창건했다는 송림사가 있다.

이 절에는 국보 전탑과 순금의 불감 등 보물이 있다.

-심일화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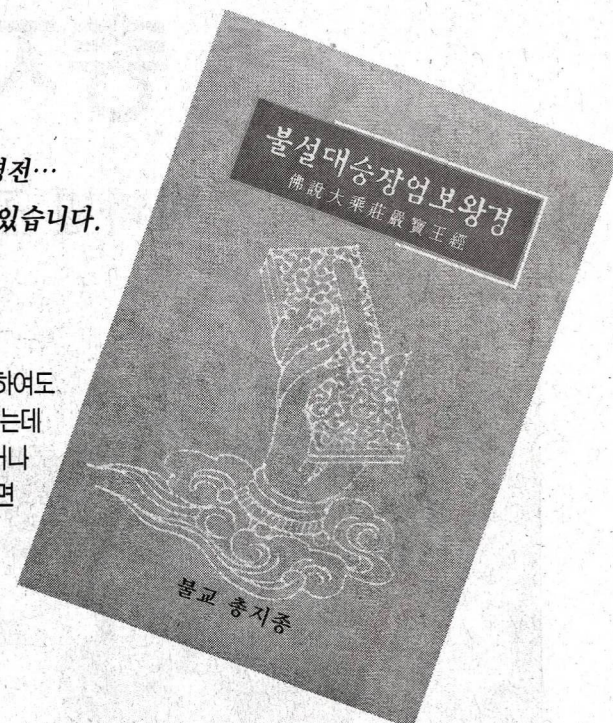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 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육자대명다라니 <옴마니반메훔>의 유래와 공덕을 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불교 총지종 법장원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충지문예

사별



임성진
동해중 2-5반

1년 전, 작은 사진에는
항상 웃고 있는 그 얼굴
다시 보고 싶어도 다시는 못 보는 얼굴

고맙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하고 싶어도 다시는 못 전할 말

예전에는 싫다고 싫다고
잡기 싫다고 뿌리췌던 그 손
이제는 잡고파도 다시는 못 잡을 손

항상 나를 반겨주었던 얼굴
한번도 진심으로 하지 못했던 말
항상 나를 챙겨주었던 손

꽃 한송이 사들고 올라가
작은 언덕 위에 올려놓으며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울면서 말해 봐도
바람 소리만 들릴 뿐
대답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가을하늘에 그린 얼굴

파랗게 펼쳐진
가을 하늘 도화지 위에
희색빛갈 색연필로
구름이 그려놓은
예쁜 미소가 아름다운
꿈길에만 만나면
당신의 얼굴.

한방울 뚝 떨어져
햇살에 빛나는 무지개 색으로
가을벌에 흩날린다.

-임송정



구름이 그려놓은
님의 얼굴 사이로
송골매 날아 오르고
눈가에 고인 그림그림한 눈물



이달의 추천도서

관세음보살42수주

무비스님 감수 / 창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에대비심대다라니경 중 관세음보살이 천수대비주와는 별도로 설하고 있는 42가지의 주문을 담은 책이다. 경전에는 각 42수 주 진언별로 관세음보살의 손모양이 그려져 있고 그 손을 보면서 진언을 외는 것이다. 특히 이 책은 사불을 통해서 42수 주 진언을 읽 수 있게 하였다. 사불이란 불교 수행법 중의 하나로 부처의 형상을 그리며 경전을 이해하고 진집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책 속에는 42수 주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 독자들이 그림을 따라 그리고 채색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성철스님 화두참선법

성철 지음/ 김영사

한국불교의 대표 수행자 성철스님의 평생 가르침 '화두참선'의 요체를 집대성한 책!

선수행의 바른 길과 영원한 자유의 길을 찾기 위한 마음공부의 교과서! 물질의 풍족함을 넘어 마음의 편안함을



찾는 수행의 시대이다. 마음을 닦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시대이다. 불교 역시 긴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수행법이 있지만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은 바로 화두참선이다. 한국불교의 대표 수행자 성철스님은 참선을 통한 깨달음을 평생의 가르침으로 삼으셨고, 스스로가 실천하며 많은 이들에게 강조하셨다. 성철스님의 상좌스님이었던 원택스님이 성철스님 열반 15주기를 맞이하여 성철스님의 법문과 저술 중에서 화두참선에 대해 간절히 말씀하신 핵심을 모아 성철스님의 평생 가르침 '화두참선'을 집대성하였다. 참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선공부하는 몸과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화두 드는 법, 깨달음의 기준, 조사스님 말씀, 참선 중에 만나는 병폐와 그 해결방법까지, 가야산의 메아리로 생생하게 살아 있는 성철스님의 참되고 간절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 성철스님이 직접 '참선하는 법'을 주제로 말씀하신 육성 법문 CD가 덧붙여져, 스님 곁에서 직접 지도를 받는 듯 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사찰 문화재 총람

김한대 지음/ 한국학술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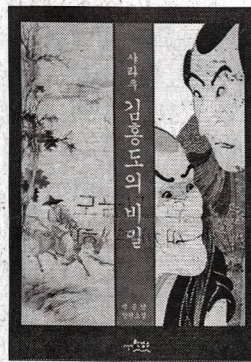
우리나라 전국의 사찰 중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전통사찰을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2008년 9월 까지 지정된 문화재가 있는 900여 개의 사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찰과 관련된 여러 참고문헌을 인용하였다. 크게 10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고, 불상, 탑, 부도, 건축물 등에 대한 간략한 소개까지 포함해 각 사찰을 소개하였다.

사라쿠 김홍도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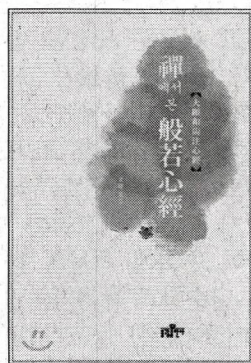
백금남 / 한강수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와 함께 세계 3대 초상화가로 일컬어지고, 빈센트 반 고흐와 같은 유럽 '인상화' 화가들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일본의 천재 화가 도수사이 사라쿠, 그는 200여 년 전, 에도의 극장가에 혜성처럼 나타나 단 10개월간 140여 점의 작품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사라쿠 김홍도의 비밀』은 이 신비의 화가 사라쿠가 김홍도라는 가설을 토대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사건들을 통해 김홍도가 사라쿠임을 흥미진진하게 밝혀 나가는 역사 추리소설이다.

단에서 본 바야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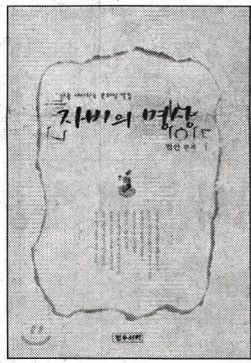
대전요통화상 원저/현봉 스님 역/ 불광출판사



송나라 때 대요통 화상이 주해한 책으로 수십 종의 반야심경 주해서 중에서도 백미로 손꼽히는 것이다. 이 책은 사전적이거나 교학적인 주해서가 아니라 선사(禪師)가 직접 체험한 반야(般若)를 구절구절마다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비로소 교(敎)와 선(禪)이 둘이 아니라는 말을 체득하고, 교화에 머물던 이가 마음 법을 깨달아 선수행자로 환골탈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자비의 명상 (양장)

법안 편 / 정우서적



『숫타니파타』의 제143~152계승, 흔히 『자비경』이라 불리는 10개의 계승을 중심으로 부처님 말씀 30개를 명상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다. 특히 일상의 번잡한 마음을 가 다듬을 수 있도록 『관무량수경』에 있는 관법명상을 함께 실었다.

여운이 법안 스님은 『법구경』을 비롯한 부처님 말씀의 핵심은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라며 부처님 말씀을 복잡한 오늘날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자상히 일러준다. 무엇보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명상하는 실천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인생은 찰나의 삶일진데

인생 한줄기 빛처럼 찰나의 삶일진데...

이 도리를 깨닫기는 그리 쉽지 않은가 보인다. 지나온 세월에 집착하고 다가오는 시간에 욕심을 놓지 못합니다.

집착의 고통과 분별의 괴로움이 일어 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났던 두 손 만민의 무언가 움켜쥐고 살라했고 두 손을 펴고 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갈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 입니다.

내 그릇은 작는데 지나친 탐욕심으로 담고 또 담으면 결국 넘쳐버리고 맙니다. 그 넘침이 지나칠 때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알고 있는 그대로...그냥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그대로 살아 가면 이 세상 그렇게 힘들지 않고 편안할 것들...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삶이 더없이 소중하고 대단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려서 빨리 어른이 되고과 나이를 높여 속이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젊어지고자 시간과 돈을들여 삶의 목표처럼 안간힘을씁니다. 생일 선물은 고마워 하면서도 삶 자체는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삶이 무상으로 주어진 보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삽니다. 순간의 일들에 매달려 삽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하찮은 일들에 매달려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다 60이되고... 70이 되면... 후회와 아쉬움으로 반성하겠지만 만회할 여력과 시간은 그리 많지 않겠지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정해진 삶일지도...있는대로, 없는대로, 오는대로, 가는대로... 여여하게 살아도 삶은 크게 변하지 않는것을...

항상 미소편 모습과 좋은 인상으로 스크린을 통해 시청자 앞에 모습 보여준 한 연예인이 자살을...그렇게 서둘러 힘하게 가지 않아도 꼭 가야만 하는 길인데...

십여년전 남편 역시 그렇게 험한꼴로 가버렸던 기억에...이번 추석 명절은 왠지 소하도 안되고 가득찬 만월이 엉성해 보이는것 같았습니다.

이른 명절맞에 명절의 깊은 맛은 없는것이지만 우리 곁으로 내지는 오지 않을 2008년 여름도 소리없이 서서히 저물어 떠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떠나 보내는 것에는 아쉬움 있지만 그래도 올 여름 보낸 시간들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기에 웃으며 보내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 합니다. 보내는 여름 마무리 못한 일 있어도 마음으로 접고 새로운 가을 맞이 합니다.

새로운 계절엔 화목한 가정 좋은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웃음꽃피는 행복한 총지중 카페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총지사 카페/고현

꿈과 희망을 품고 실천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 교훈 : 창조 · 협동 · 경애
- 교목 : 보리수
- 교화 : 장미

충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전화 : 051-556-0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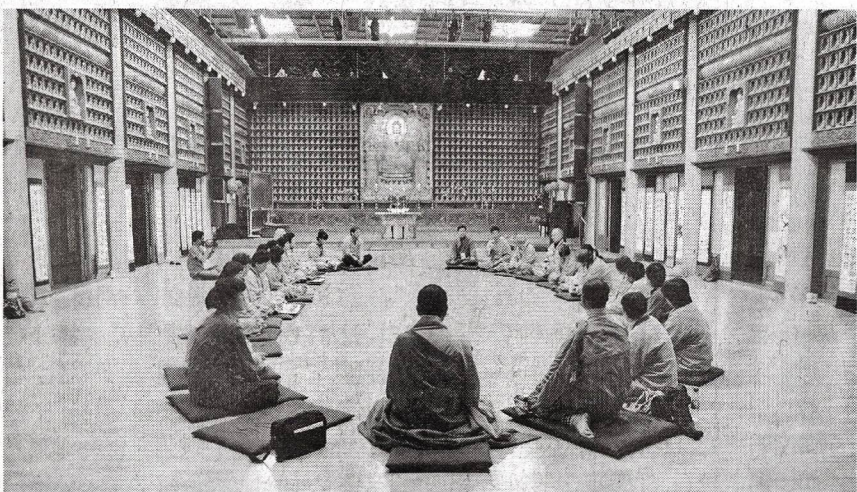


불교총지종이 주관하는 제2차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가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세계 16개국 30여명의 재가불교지도자 및 재가불교운동관련 학자와 승려들은 '재가불교의 철학과 실천'과 관련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2회에 걸쳐 주요 논문을 요약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재가불교의 철학과 조직변화의 이끝음

제프 와이스텔 | Oxford Brookes University

불교 철학에서의 영성(불성)을 논하는 데에 이 발제문의 의의가 있다. 영성(불성)의 개념 자체는 개인적이며, 다가서기 힘들고, 무한성에 대한 각자의 정의에 달린 것이고, 짚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기에 결론적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개념이지만 조직적 변화라는 틀 안에서 접근해 보았다.



'영성(불성)'은 불자의 수행, 육체적이며 구체적 체험을 통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지혜를 내포하는 수행과는 대립된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이분은 영성(불성)에의 접근을 막는다. 나와 나 아닌 것의 구분이 개인주의로 흘러가 버리듯이, 이러한 이분은 조직적 변화에 적합하지 않다. 불교의 이원론 아닌 이원론이 일하는 조직과 구성원들을 보는 시각으로 적합하다.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시각으로 구성원과 변화의 사건들을 대하기 때문이다. 집단에 대한 시각을 지닌 이 철학은 변화의 과정에서 개인 간의 싸움을 완화시킨다. 불

필요한 소모를 막으며 제품의 판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에 있어서도 진정 필요한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만든다.

이 발제문은 복음의 전파가 아닌, 조직적인 변화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찾아보고 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영성은 기독교에서는 특히 유리되어 있는 단어이다. 영성이란 하늘로 증

제가 있다. 바로 불교 그 자체의 변화이다. 불교는 시대에 따라 다른 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점점 사회적 저항, 친환경을 위한 저항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원론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통불교와 신식불교, 실천불교와 절 안의 불교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부파를 인정해야 한다. 불교는 유례없는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제왕국에서는 탄압받기도 하며, 새로운 문화와 맞닥뜨리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런데 불교가 그동안 얼마나 변화를 잘 받아들였었는가? 예를 들어 선불교는 어떠한 교리도 어떠한 단어에도 의존하지 않고 명상에만 집중했었지 않은가. 그러한 단순함과 유연함이 변화에 적응케 한 것이다. 하지만 단순함과 유연함은 양날의 검이다. 미끌미끌한 물고기처럼 손에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명상이란 허명 하에, 참선이란 허명 하에 개인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기도 했었던 예가 있지 않은가. 암베드카르(Ambedkar)는 불교를 공산주의 형태로 만들기도 했었던 예를 보듯이 참선은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불교의 탈바꿈은 불교가 현 상태를 유지하려 하는지를, 보수세력과 결탁했는지, 억압적 권력에 동조했는지를 의문 삼는 데에 까지 확장된다. 깨달음을 위해 사회에의 관심을 거둘 수는 없다. 전통적으로 고통과 그로부터의 해방은 개인의 마음의 문제라

고 이야기 되었지만 고통을 유발하는 사회와 정치적 구조에도 눈을 떠야 한다.

종종 불교에서 평화를 근간으로 삼기도 한다. '한 걸음 한 걸음에 평화'를 외치는 틱낫한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반면 가톨릭의 사회 운동은 '정의와 평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이는 평화의 얻음 여부가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사회의 고유한 이면에 자리 잡은 구조적 폭력을 허명의 평화를 내세워 인식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틱낫한은 개인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의 이미 확고한 구조에 대해 변화시키려는 시도조차 못하게 한다.

나아가, 가난과 그에 따른 고통의 구조적 원인을 이해하고 깨내는 대신 조선왕조식 복지 형태를 모범으로 삼아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뿐이는 사회의 구조적 도움의 손길을 상징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것들이 불교 자체의 변화와 더불어 실천해야 하는 과제이다.

청평거사(淸平居士) 이자현을 통해 살펴본 소통(疏通)의 문제

법현(法顯)스님 | 태고종 / 열린선원

이 자현은 고려 중,후기 문신정권의 핵이었던 인주 이씨의 집안에서 태어나 과거에 급제하고 제대로 권력의 힘을 누릴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

한편으로는 무신정권의 등장을 눈앞에 두고 권력에 몰들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자. 신의 집안과 그들에 의해 이끌어지는 고려 왕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자라나게 되었다.

따라서 자신이 살아가던 시대의 왕족과의 교류와 문벌들과의 사귄을 통해 그리고 춘천에 있는 청평산으로의 낙향을 통해 일반 민간인들과의 어쩔 수 없는 삶을 통해 왕족과 평민의 삶을 동시에 알고 산 드문 인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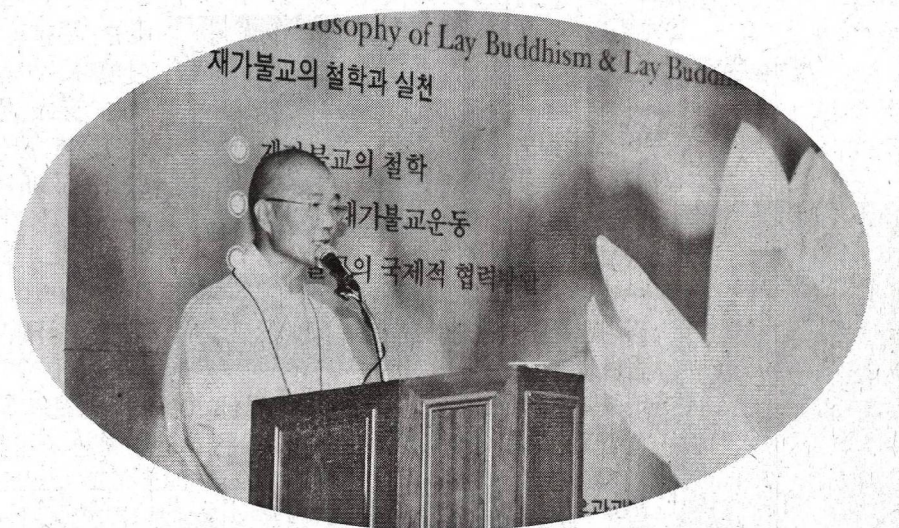
자신이 살았던 청평사 주변에 만들어 놓은 건물의 이름을 도교적인 것과 불교적인 것으로 불었다. 그것은 마치 중국의 선사들이 노력했던 도교 또는 노장사상의 합일을 도모했던 것과 너무나도 닮았다. 진리에 계합해서 사는 삶은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선이 살아가는 삶처럼 자연과 벗 삼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아는 이였다.

한편 도교와 불교의 합일을 이루더라도 불교를 중심축에 놓고 살았던 것처럼 불교의 중요 사상과 수행법인 교학(敎學)과 선학(禪學)에 관한 관점에서 그의 노력은 돋보인다. 대개 교학에 치우치는 이는 선학을 부

처님의 친설(親說)이 아니라고 한다. 거꾸로 참선수행에 치우치는 이도 교학을 부처님의 마음에 이르지 못하는 중간 도구일 뿐이라고 평가한다. 이자현은 이렇게 부딪치는 두 가지 방향의 수행경향을 하나로 회통시키는 방편으로 능엄선을 주창했다. 이는 멀리서 송나라의 장수자선에게까지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참선수행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버린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야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경계였다.

설봉선사의 어록을 보다가 깨달음을 얻은 것도 결국 능엄경과의 관련성에서 정진의 추를 바로 놓고 제대로 정진해 기원을 만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능엄경>을 선수행에 도입하여 능엄선을 주창하고 문도들에게 적극 권유하며 그 이후 불교계 특히 선종계의 활력소를 불어넣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수선사(修禪社)와 백련사(白蓮社)의 결사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원리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능엄경>에서 마경을 극복하고 들리는 대로 듣는 이근원통(耳根圓通)이 최고의 수행이라 한 것처럼 그는 <능엄경>을 중시하여 선사들이 무조건 중심축과 방향 없이 정진하는 것을

그래서 그가 당시의 불교계에서 두 사람의 국사를 문인으로 삼아 가르침을 베풀고 사회에서도 또 수 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존경의 도가 더해 승, 속을 막론하고 귀감을 삼았다.

금강승에 있어서의 재가(在家)와 전통과 현대:전환기의 현대 개종불교

버카드 웨러 | Canterbury Christ Church Univ.

금강승의 미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통의 연속성과 법통의 전수는 금강승 교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트루파와 마찬가지로 니달 역시 카구와 전통과 마하신타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금강승이 전세계적인 카르마 카구와 불교에 확고하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수행력이 높은 카르마 카구와 라마들과 법을 이어 받은 사람들-특히 카르마 카구파의 사마르파 계열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비록 동일한 카르마 카구와 전통에 속하는 다른 카르마 카구와 종파들이 종종 니달에 대해 악의적인 비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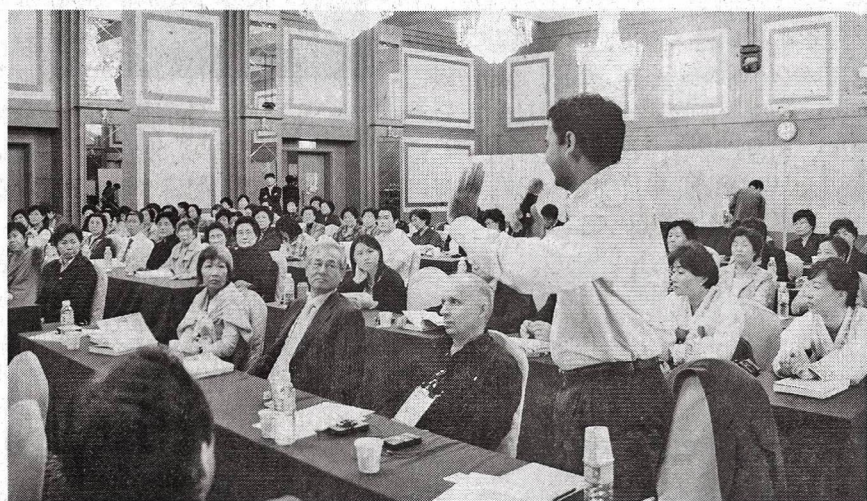
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카르마 카구파의 법통을 이은 사람들 찾아 볼 수 없다.

논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성별과 성에 대한 니달의 입장은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티벳 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옳을 수가 있다.

물론 이것은 물론 기능주의적 입장으로 보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니달은 명상수행에 있어서 스승으로부터 법을 이어받는 것을 본질적인 요소로 보았다. 니달의 금강승은 티벳 불교의 연속성과 변화성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력 하에 현대 서양 카르마 카구와 종파로서의 금강승은 그 교세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적어도 유럽 대륙에서 만큼은 금강승이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금강승은 전세계에 퍼져 있는 카르마 카구파의 한 종파로서 타에 도제/사마르파 계열에 속한다. 이 계열의 법을 이은 사람들이 금강승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깨달음을 얻은 법사들이 니달의 사후 법통에 대해 지금보다 더 확고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것은 현재 센터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의 노



른자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2007년에 행한 인터뷰와 2008년에 행한 법문에서 니달은 자신과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활동과 그 자신을 가리켜 같은 지도자라는 뜻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더 나아가서,

으며, 자연스레 교단 내부의 서열을 형성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교단 내부에서 힘을 가진 조직의 리더들과 후계자로 지목될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규모의 권력투쟁이 일어날 것인지를 추측하기는 힘들다. 티벳 전통으로 내려온 영적 지도자를 선별하는 툽주 제도는 시작부터 정치적, 경제적 힘의 논리에 희생되어 왔다. 예를 들면, 사카파에서 갈라진 소종파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선출된 툽주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양에서 우리는 법통의 계승을 둘러싼 논쟁으로 교단이 분열하여 새로운 사상을 강조하는 새로운 분파가 출현했던 혼란스런 상황을 트루파의 예를 통해 보아 왔다. 니달 사후 불어닥칠 행정적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 간의 권력투쟁의 양상에 따라 금강승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행복하고 순수한 미소를 전해주는 뽐 스튜디오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것,

행복한 마음까지 담아내는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 감춰진 추억의 책장을 넘기는 순수하고 환한 미소

뽐 스튜디오는 여러분에게 행복과 사랑을 전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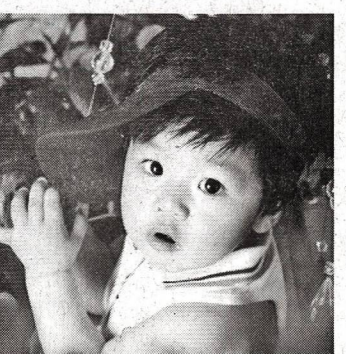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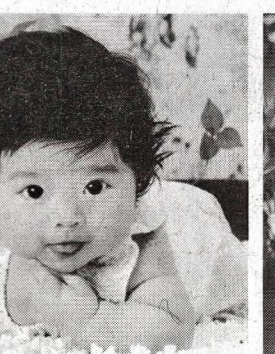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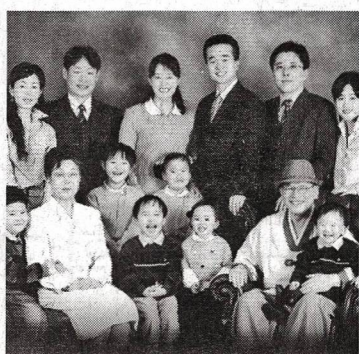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대명프라자 동관2층, 뽐스튜디오

찾아오는 길: 지하철 3호선 주엽역 8번 출구 5분거리

전화: (031) 915-3856 정진숙 실장 (송우섭 보살 삼녀)

홈페이지: bomstudio.com



국제재가지도자대회 참가기

“지구촌 불자들 토론 열기에 시간 가는 줄 몰라”



김경인 보살
(성화사)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를 실천하는 불자들의 모임.

지구촌 6대주의 이곳저곳에서 모인 불자들의 모임이라 사뭇 가슴이 설레기도 한다. 푸른 눈의 불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부처님을 믿는지 몹시 궁금하다. 우리들처럼 부처님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달라는 기복신앙일까? 아직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 대회지만 참가자들의 마음가짐은 대단하였다. 철저한 자료 준비와 서로의 질의응답에 시간이 가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대회 첫날 세미나 발표내용 일부를 정리해 보면 이렇다.

*불교에서의 깨달음이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서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고 그리고 내적인 변화와 성장을 통한 자각까지도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출가자와 재가자는 수직적 상호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평등 관계가 되어야 한다.

출가자는 지혜를 빌려줄 수 있지만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역시 재가자들의 몫이다. 그러므로 출가자와 재가자는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고, 거칠게 말하면 일종의 분업이다.

*대만 불교의 교육을 위한 포교(리빙난선생): 대학에서의 정토불교를 대표하는 재가불자들이 학생들에게 ‘불교 연구’로부터 ‘불교실천’으로 이끌도록 노력함

*청평사 이자현을 통해 살펴본 소통의 문제(법현 스님): ‘한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폈는데 너는 어느 곳을 향해 주그리고 앉겠는

가?’ 조사 스님의 설봉어록을 보고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을 깨닫고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았으며 벼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을 피해 살만한 곳을 찾아 청평산으로 들어감. 불교계에서도 접근해 보지 못했던 능엄경을 확신을 가지고 발전 시켜나감. ‘새의 즐거움은 깊은 숲 속에 있고 불교의 즐거움은 깊은 물 속에 있다.’ 생태를 보존해야만 자본주의 시대에도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자연

몹시 시작됐다.

모두다 아침을 맛있게 먹고 넘치는 인원으로 포개고 또 포개서 앉아 가는 상원사의 계곡길은 단풍 그 자체의 마냥 ‘아~~~’ ‘와~~~’ 탄성 그 자체이다.

붉디붉은 단풍과 샛노란 은행잎들의 화려한 옷치장에 눈이 마냥 즐겁기만 하다.

세조로 인해서 단종이 죽자 단종의 어머니가 세조의 몸에 침을 뱉는 꿈을 꾸었고 몸에 심한 피부병이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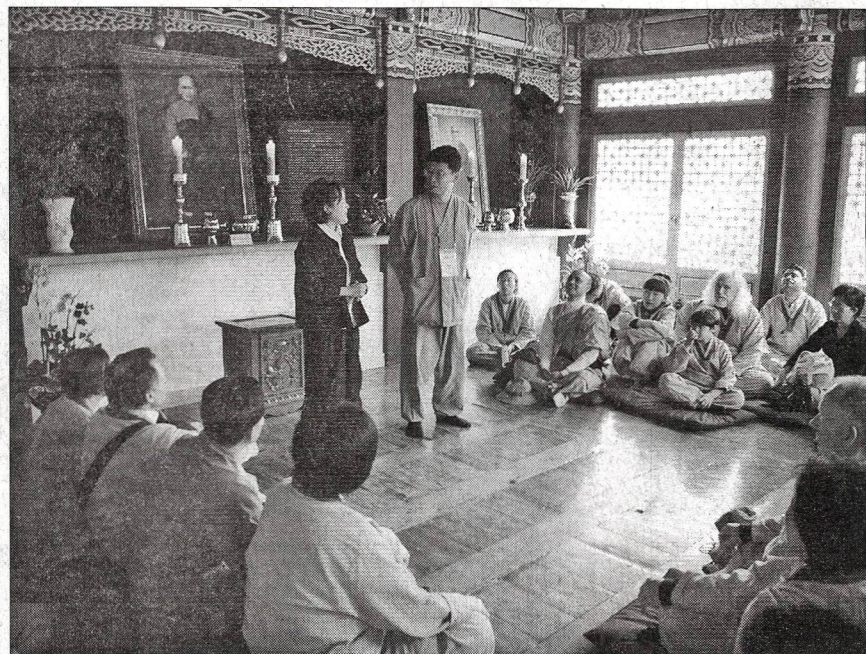
쳐 놓고서 계곡에서 목욕을 할 때 동자가 와서 등을 밀어준다.

“동자야, 전하의 등을 밀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자 ‘동자’ 왈, “전하 절대 문수 동자가 등을 밀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그 순간 동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 후로 세조의 몸은 깨끗이 나왔다. 세조가 법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고양이가 옷자락을 물고 놓지를 않았다. 이상해서 주위를 살피니 불단 밑에 자객이 숨어있었다. 그렇게 고양이 기범하기 위해서 한 쌍의 고양이 상을 세워 놓았다. 상원사에서 월정사로 내려오는 계곡의 아름다움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삼다리, 둘다리, 징검다리 한꺼번에 건너보는 다리의 정겨움과 숲속의 단풍과 어우러진 흰색의 바위와 흐르는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월정사의 참나무 숲 산책길은 속새를 벗어나서 명상의 길로 인도해 준다.

살포트 살포트 구르듯이 새끼 다람쥐의 움직임에 숨을 죽이며 산새들의 노래 소리와 오색 무지개로 하늘을 뒤덮더니 결국에는 땅에도 오색운단을 깔아 놓은 듯이 예뻐다.

‘작은 물건이라도 있어야 할 곳을 잃지 않게 하고 모든 것이 제각기 마땅함을 얻도록 해야 한다’ 는 구절을 되새겨 보며 나 또한 한 물건인 것을 나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 명상의 길을 뒤로하고 아쉬운 발길을 돌린다.



▲상원사 사찰 안내

주의 사상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재가 불자들의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몫을 다하고 참가자들 또한 열띤 질의응답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다음날 강원도 월정사. 별이 총총한 깊어가는 가을의 새벽 산사의 맑고 차가운 싱그러움 공기에 정신을 가다듬고 웃기를 하며 새벽예불에 참석했다. 석가모니불의 명호를 외면서 도량을 도는 청아하고 낭랑한 스님의 목소리를 시작으로 새벽예불과 목아어 108배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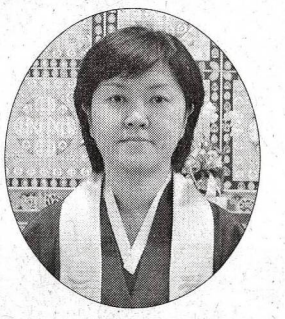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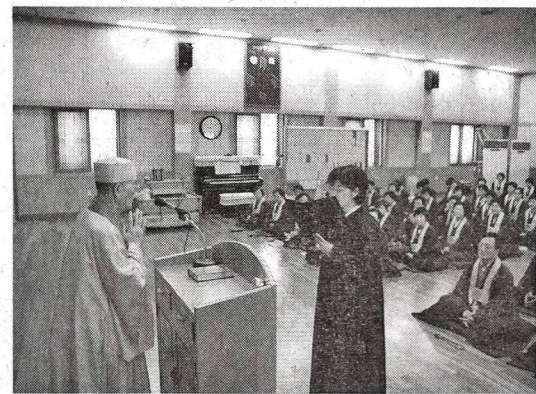
외국인들도 절을 곧잘 하였다.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참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고, 탐,진,치(貪,瞋,痴) 어느 것 하나 참회하지 않을 것이 없었다. 절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새벽3시부터 일 어났기에 안하던 108배를 한 덕분에

병하였다. 갈수록 심해지는 병고에 심미 스님의 배를 타고 상원사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단종의 무덤을 지나야만 하는 곳이라 어쩔 수 없이 무덤에서 참회를 하고 상원사로 간다. 관대결이에 웃을 걸



▲월정사 일주문에서

신규 스승 발령 (10월 22일자)



정 원
(정각사)

세상사는 이야기

어제부터 심실이 잔뜩 난 심실쟁이처럼 하늘이 무겁게 가라 앉더니 오늘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한다. 온 집안의 분위기도 무겁고 어둡다. 게다가 나 혼자 어두컴컴한 거실에 앉아서 점점 생각의 나락으로 빠져 든다. 마치 나 홀로 캄캄한 어둠 속으로 작은 배를 타고 저절로 흘러가고 있는 듯 하다. 내 마음도 점점 어둡게 가라앉고 있다.

“아! 안되겠다. 불을 켜야지.” 거실의 불부터 켜기 시작해서 온 집안의 불을 다 켜다. 한 순간에 주위의 어둠은 사라지고 환한 세상으로 돌아왔다. 내 가슴 속에도 환하게 불이 켜졌다. 제 일 밝은 봄빛이다. 역시 밝은 세상은 우리 모두를 밝은 곳으로 안내한다. 냉장고에서 새빨간 사과 한 개를 꺼내서 수돗물에 짹짹 씻은 다음 탁탁 털어 그냥 한입 베어 물었다. 상큼한 사과향과 함께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진다. 어둠에 가라 앉았던 마음은 사라지고 달콤한 행복감이 살며시 찾아 온다.

며칠 전 내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 사과 따기 체험 및 역사 탐방을 다녀 왔다. 충주에 있는 어느 농원에서 체험학습이 진행되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사과도 그때 사과 밭에서 직접 딴것이다. 친환경 유기농사과로 겹겹째 먹어도 되는 사과다. 농약을 주지 않고 재배한 농민의 수고로움이 보인다. 한약재를 이용하고 발육이 안 좋은 사과와 떨어진 사과는 그대로 땅에 버려두었다. 그러면 벌레들이 땅에 있는 것을 먹느라고 어렵게 나무에 올라 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농약을 뿌릴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 곳 농원까지 가는 버스에서 우리들은 어린이들이 소풍을 떠났듯 서울에서의 근심걱정 모두 잊고 즐겁게 이야기 하며 나누어 준 떡과 과자를 맛있게 먹었다. 사과나무 가로수 길을 따라 버스는 드디어 농원에 도착했다. 갑자기 와! 하는 떠나갈 듯한 소리가 들렸다. 사과 나무에 사과가 새빨갳게 익어 햇빛을 받아 더욱 예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우리들을 환영이라도 하듯 두 팔을 벌리고 있다. 어떤 꽃보다

예뻐다.

농원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미리 따 놓은 사과를 맛있게 먹고 설명해 준 대로 따 보았다. 생각보다 쉽게 따진다. 사과 밭에서 사과를 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예전에 어느 영화에서 본 듯한 아름다운 장면 같고 사람들은 모두 사과를 따느라고 양쪽 볼이 빨갛게 삼기 되어 그대로 사과를 닮아 버렸다. 점심때가 되어 이곳에서 준비해 준 음식은 자연이 그대로 식탁에 오른 것이다. 이런 먹거리가 우리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우리 먹거리는 너무 불안하다. 중국산이 곳곳에 들어와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다. 날마다 새로운 불량 먹거리 이야기가 TV나 신문 지면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

맛있는 점심 후 우리는 역사탐방을 시작했다. 제일 먼저 ‘탄금대’에 올라 문화해설사의 해설을 들었다. 신라 진흥왕 때 악성 우륵이 가야금을 탄주하던 곳이라고 한다. 체험도 하고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 공부도 하고, 돌아오는 길은 피곤하지만 무언가를 채우고 가는 뿌듯함에 힘든 줄 몰랐다. 버스 안은 아침 떠날때의 설렘과는 다르게 차분한 분위기였다. 맑은 일을 잘 마치고 돌아가는 만족스럽고 배가 부른 듯한 아주 편안한 기분이었다.

차창밖에 펼쳐지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붉은 눈에 핀 황금 들꽃은 석양빛을 받아 샛노랗게 빛나고 있다. 하늘은 점점 붉은 색으로 물들고 있다. 붉은 색이 점점 짙어 지더니 드디어 온 하늘이 빨갛게 물들었다. 마치 불타는 듯하다.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예전엔 아침에 보는 떠오르는 태양을 좋아했는데 이제 온 하늘을 빨간색으로 물들이는 저녁 노을이 더 좋아 지고 있으니 무슨 이유일까?

그날의 새빨간 사과, 샛노란 황금 들꽃, 돌아올 때의 불타는 저녁 노을, 지금 생각해도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다.

- 박묘정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 종조법설집 명상용 CD, 테잎 보급



불교 총지종은 종조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출시된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은 편안한 배경음악에 전문성우의 음성을 더빙해 누구나 듣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책으로 된 종조법설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원정 종조님의 사상과 유훈을 이땅에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큰 의미가 있는 불사 일 것입니다.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구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불교 총지종 통리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 교 총 지 종 통 리 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6-2 / 전화 02)552-1080~3 / 팩스 02)552~1082

제2차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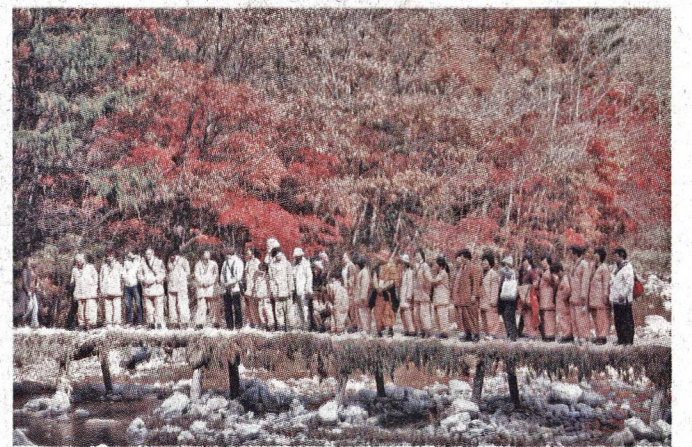
“재가불교의 철학과 실천”



효강 종령 예하 기념사



오대산 월정사 사찰문화 탐방



삼다리 위에서 한컷



독일 그스윈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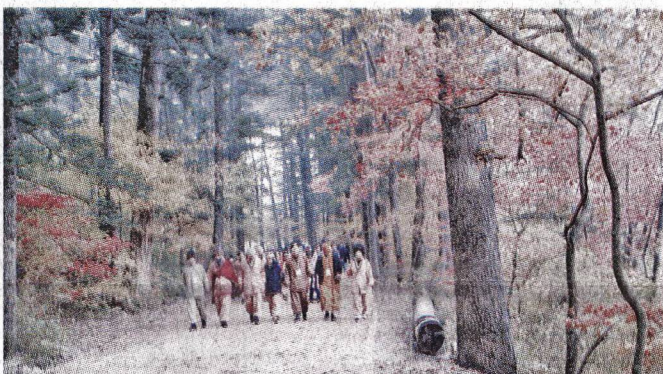
포럼 후 열띤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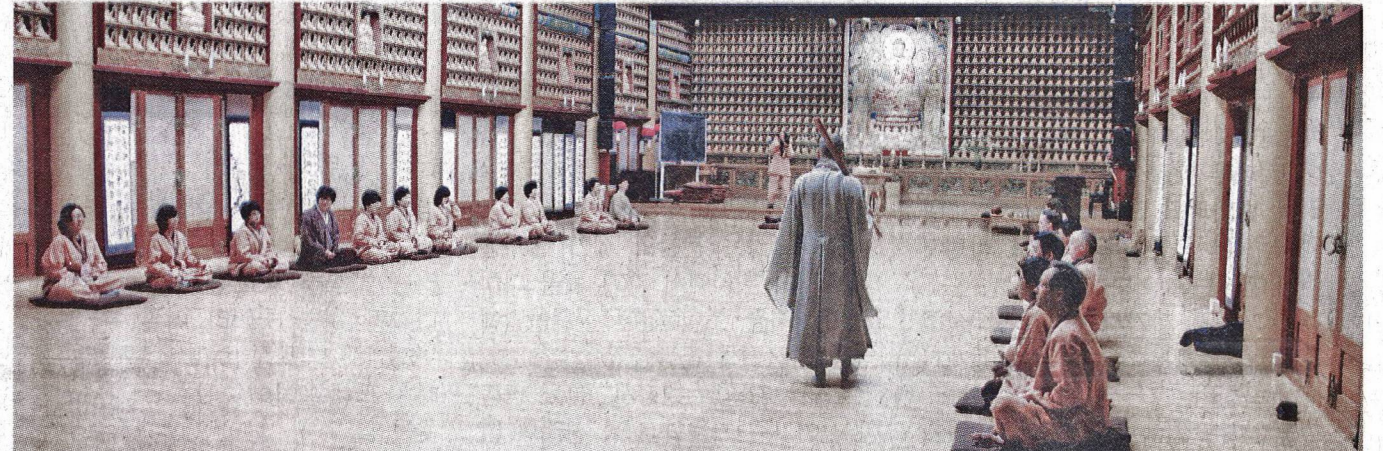
포럼을 마치고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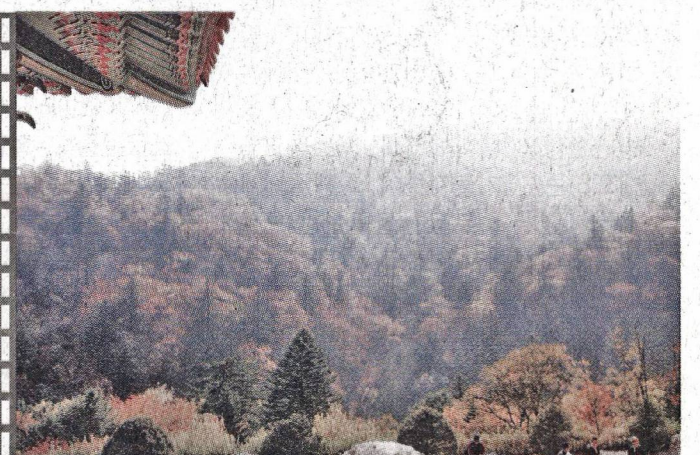
“기외불사 뜻깊습니다”



천년숲길 경행



월정사 템플스테이



회장 김동운
(관성사 교도)

고급원색인쇄 대국전4색·2색 / 광고기획 / 출판 / 카다로그 / 브로슈어 / 전단 / 명함 / 사보편집

판촉물 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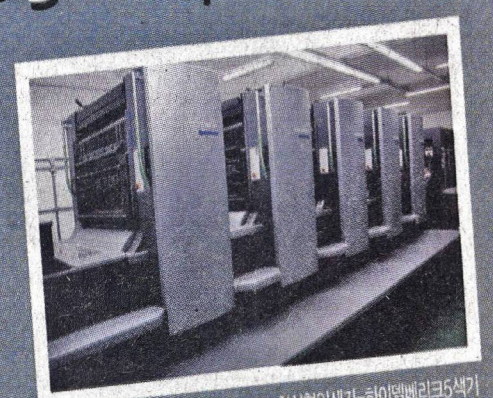
최신형 인쇄기로 고품질의 인쇄물을
기획에서 납품까지 원스톱시스템으로 고객을 만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주)윤일문화는 상품을 팔지 않습니다. 고객의 의도를 소비자가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인식을 심어주는 것, 고객과 소비자의 사이를 가장 가깝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윤일문화가 하는 일이자 (주)윤일문화만의 전략입니다.

(주)윤일문화는 언제나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광고, 마케팅, 세일즈 프로모션 등의 회사보다 앞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윤일문화는 세계 최고의 인쇄기인 최신형 하이델베르크 5색기와 4색기를 보유하고 있어 고품질의 인쇄물을 기획에서 납품까지 원스톱시스템으로 고객을 만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과 소비자를 하나로 만드는 전략,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전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칩니다.

(주)윤일문화는 전국판촉물제조협회와 업무제휴하여 고객사의 판촉물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 최신형인쇄기-하이델베르크5색기

ONE-STOP SYSTEM

고객

기획
디자인

인쇄
후가공

납품
A/S

인쇄와 판촉물의 모든 것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Tel. 02-498-6161T(대) Fax. 02-469-9017



주식회사 윤일문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77-47

E-mail : orient-kim@hanmail.net

Webhard : dongw(ID), 4567(PW)